1st quarter of 2022
thebell league table

- Equity Capital Markets
- Debt Capital Markets
- Korean Paper
- Mergers & Acquisitions
- Fees

1st quarter of 2022
thebell League Table

Equity Capital Markets

Deal list 집계기준

- 국내 증권시장에서 이루어진 기업공개(IPO), 유상증자(RO), 주식연계증권(BW, CB , EB 등) 발행, 블록딜(Block Deal)을 대상으로 집계한다.
- 공모 거래와 사모 거래, 상장 주식과 비상장 주식을 모두 포함한다.
- 기업공개(IPO)는 국내 증시에 최초로 상장된 종목을 대상으로 한다. 이전 상장과 분할 재상장,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와의 합병 상장 및 해외시장 기업공개(IPO)는 제외한다.
- 기업공개(IPO)와 유상증자(RO), 주식연계증권(ELB)은 거래금액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단 블록딜(Block Deal)은 건당 500억원 이상의 거래로 제한한다.
- 블록딜(Block Deal)은 불특정 다수의 기관투자가에게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국내 증시에 상장된 기업의 주식을 매각하는 거래를 뜻한다.
- 기업공개(IPO)와 유상증자(RO), 주식연계증권(ELB)은 납입일을 기준으로, 블록딜(Block Deal)은 거래 실행일을 기준으로 집계한다.

League Table 작성기준

- 주관사의 주관 실적, 인수사의 인수 실적, 모집주선사의 모집주선 실적을 각각 집계해 발표한다. 블록딜(Block Deal) 거래실적은 별도 집계 · 발표한다.
- 주관 실적, 인수 실적, 모집주선 실적은 증권신고서 및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기준으로 한다.
- 주관 실적, 인수 실적, 모집주선 실적은 원화를 기준으로 집계한다. 외화표시 주식연계증권의 경우 증권신고서 또는 증권발행실적보고서에 신고한 환율을 기준으로 원화로 환산한다.
- 주관 실적은 대표 주관사(공동 주관사 제외) 별로 집계한다. 대표 주관사가 복수인 경우 총 거래금액을 비례 안분한다. 다만 기업공개(IPO) 거래에 대해서는 공동 주관사의 실적을 인정하되, 인수 금액으로 한다.
- 모집주선 실적은 공모거래에 한해 집계한다. 모집주선 실적은 주선사 수에 따라 균등 배분한다.
- 부분잔액인수(주관사가 총 발행금액의 일부에 대해서만 인수 책임)의 경우 대표 주관사의 주관실적은 인수 책임금액으로 한다. 인수 책임을 지지 않는 금액은 모집주선 실적에 반영한다.
- 부분잔액인수의 대표 주관사가 복수일 경우 주관실적은 각 대표 주관사가 인수한 금액과 타 인수단의 인수금액을 균등 배분한 금액의 합계로 한다.
- 수수료는 증권발행실적보고서에 명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사모거래의 수수료는 집계하지 않는다.
- 주관 실적에 대해서는 수취한 수수료를 반영한 조정 리그테이블을 시범적으로 발표한다.

Overview

2022년 1분기 주식자본시장(ECM)은 사상 최대 거래액을 경신하며 지난해에 이어 뜨거운 열기를 이어감. 지난해와 달리 증시가 침체기에 접어든 가운데에서도 세운 기록. 국내 자본시장의 새 이정표를 세운 LG에너지솔루션 IPO의 존재감이 컸음.

다만 LG에너지솔루션 IPO를 제외하면 IPO 거래액은 1조원도 채 넘기지 못함. 2021년과 달리 눈에 띄는 빅딜과 중형딜이 크게 줄어든 탓. 최근 1년여 동안 매분기 눈에 띄는 증가세를 이어오던 유상증자와 주식관련사채 등도 1분기에 증가세가 꺾이는 등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는 점차 차분해져감.

연내 등판을 예고한 대어급 딜이 많이 남아 있긴 하지만 불확실성이 커진 이유임. 기준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대외적 정치적 리스크 등 변수가 산적한 만큼 시장 분위기는 점차 냉각되어갈 가능성이 큼.

◇2022년 1분기 대비 9조 증가...LGES 제외하면 거래액 감소

더벨 리그테이블에 따르면 2022년 1분기 유상증자(Rights Offering, RO)와 기업공개(IPO), 주식연계증권(ELB) 딜을 합산한 ECM 거래액은 26조7679억원으로 집계됨. 2021년 1분기 17조2991억원에 비해 54.7%(9조4687억원) 증가함.

이는 2010년 리그테이블 집계 이래 사상 최대 분기 거래액임. 직전 최대치는 2021년 3분기 25조9837억원임. 2022년 들어 증시가 주춤하는 모양새지만 외견상 주식자본시장의 활황세는 지속되는 모습임.

지난해 말 3000선에 머무르던 코스피 지수는 최근 2700선까지 낮아졌음. 2021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각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등에 더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 외부 악재에 영향을 받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 거래액을 이끈 건 LG에너지솔루션 IPO임. LG에너지솔루션 IPO 공모액은 12조75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임. LG에너지솔루션 IPO를 제외하면 1분기 전체 ECM 거래액은 14조179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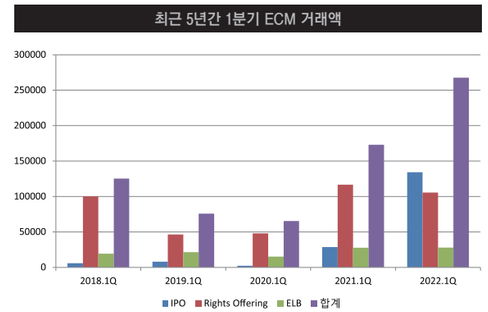
LG에너지솔루션은 공모 과정에서도 다양한 기록을 남김. 기관 수요예측 경쟁률 2023대 1로 유가증권시장 역사상 최고 경쟁률을 보였으며 일반 청약 증거금 역시 1경5000조라는 천문학적인 기록을 남김. 물론 허수 청약 등에 대한 논란에 불을 지피는 계기가 되기도 했지만 당분간 이를 넘어설 후보군이 등장할 가능성도 적어 역대급 랜드마크 딜로 남을 전망임.

이에 힘입어 IPO 거래액은 폭증함. 2022년 1분기 13조4258억원으로 전년 동기(2조8558억원) 대비 5배 가까이 커짐. 기존 역대 최대 분기 기록이었던 삼성생명이 상장한 2010년 2분기(5조8671억원)를 가뿐하게 넘김.

다만 LG에너지솔루션 IPO를 제외하면 IPO 거래액은 1조원도 되지 않는 6758억원으로 증시 침체기였던 2018년, 2019년과 비슷한 수준임. 2022년 1분기 증시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현대엔지니어링 등의 IPO 딜이 무산되는 등 마냥 시장 분위기가 긍정적이지만은 않았음.

유상증자 거래액은 역시 1분기 10조561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4%(1조988억원) 감소함. 아시아나항공(1조5000억원)과 두산중공업(1조1478억원), NH농협금융지주(1조1121억원) 등 조단위 빅딜이 진행되긴 했지만 증시 변동성 확대의 영향을 받은 모습임.

주식관련사채(ELB) 시장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함. 2022년 1분기 거래액은 2조7805억원으로 전년 동기(2조7718억원)와 큰 차이가 없었음. 다만 증시 호황기에 따라 2020년 4분기 이후 매분기 이어오던 증가세는 멈춤. 전환사채 관련 규정 개정에 맞춰 선제적으로 이뤄지던 발행 러쉬가 일단락된 데다 공모주 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공모주 우선 배정 자격을 확보하려던 투자 수요도 주춤함.



(단위:억원)

항목	2018.1Q	2019.1Q	2020.1Q	2021.1Q	2022.1Q
IPO	5,866	7,975	2,267	28,558	134,258
Rights Offering	100,107	46,373	47,899	116,603	105,615
ELB	19,274	21,410	15,127	27,718	27,805
합계	125,246	75,758	65,293	172,873	267,679

◇IPO 등 빅딜 대기물량은 여전...'옥석 가리기' 장세 속 개별딜 성적표 주목

2022년 IPO 빅딜이 줄줄이 예고된 만큼 1분기 기세를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 SK쉴더스와 원스토어 등이 상장예심을 통과해 2분기에 공모에 나설 전망이다. 이 밖에 현대오일뱅크와 쏘카, 마켓컬리, 오아시스마켓 등 올해 IPO를 계획 중이 대어들도 연이어 등판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

유상증자 빅딜 출현도 지속될 수 있다. 물론 주가에 영향을 주는 문제인 만큼 계획을 사전에 밝히지 않아 당장 규모 예측은 어렵다.

하지만 업계 분위기는 숫자와 다르다. 이미 주식자본시장의 호황기가 정점을 지나 내리막길에 접어들었다는 위기감이 조성됐다. 이미 IPO시장에선 질적으론 부정적 결과물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과 대명에너지, 보로노이 등은 수요예측 결과 원하는 수준의 투자자를 모집하지 못해 상장을 철회했다.

발행사의 대기물량은 여전히 상당한 규모지만 투자 수요측면에서 변동성이 커진 결과다. 금리인상으로 국채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위험자산인 주식 투자 매력도는 떨어지기 마련이다. 이에 당장 증시 반등을 꾀할 수 있는 우호적 이벤트가 있지 않는 한 당분간 증시 침체는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IB업계 관계자는 "옥석 가리기 장세가 시작된 만큼 각 기업별로 딜 완주를 위해선 시장 상황을 감안한 치밀한 발행전략이 필요해진 시기"라며 "한동안 빅딜 IPO가 등장하지 않았던 만큼 본격적으로 대어급이 등판하는 2분기 수급 상황이 2022년 전체 발행 실적을 가늠해볼 수 있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 1분기 ECM 주관 순위

순위	주관사	금액(백만원)	건수	점유율(%)	조정실적(백만원)
1	KB증권	3,446,102	7	21.97	3,771,692
2	모간스탠리	2,868,750	1	18.29	2,094,217
3	대신증권	1,457,620	3	9.29	1,349,573
4	신한금융투자	1,443,760	3	9.20	1,342,125
5	BOA메릴린치	1,402,500	1	8.94	1,212,441
5	골드만삭스	1,402,500	1	8.94	1,212,441
5	씨티글로벌마켓증권	1,402,500	1	8.94	1,212,441
8	미래에셋증권	467,892	6	2.98	553,557
9	한국투자증권	316,726	9	2.02	627,920
10	NH투자증권	267,358	3	1.70	486,858
11	신영증권	252,240	3	1.61	448,619
12	삼성증권	232,410	4	1.48	219,868
13	키움증권	197,698	2	1.26	65,144
14	SK증권	162,000	2	1.03	194,698
15	한양증권	113,400	1	0.72	128,109
16	하나금융투자	76,750	3	0.49	246,280
17	DB금융투자	76,400	3	0.49	261,135
18	유진투자증권	68,837	3	0.44	108,440
19	상상인증권	15,770	1	0.10	30,126
20	유안타증권	12,000	1	0.08	85,480
21	IBK투자증권	5,000	1	0.03	37,049
총합계		15,688,215	59	100.00	15,688,215

* ECM 거래(IPO, 유상증자, ELB) 중 주관사 지정 거래 순위
* 모집주선 금액 제외. 증권신고서상 인수 금액만을 반영
* 금액 및 건수총계는 주관사 지정 거래만을 포함한 수치
* 점유율은 주관사 지정 거래 총규모 대비 주관사별 주관금액 기준
* 조정실적은 명목실적에 수수료율을 토태로 산정한 가중치를 차등 반영한 거래실적. 수수료율이 높은 거래를 주관한 IB일수록 명목실적 대비 조정실적이 높게 책정.

2022년 1분기 ECM 인수 순위

순위	주관사	금액(백만원)	건수	점유율(%)
1	KB증권	3,346,927	7	21.33
2	모간스탠리	2,422,500	1	15.44
3	신한금융투자	1,496,349	4	9.54
4	대신증권	1,457,620	3	9.29
5	씨티글로벌마켓증권	1,402,500	1	8.94
5	BOA메릴린치	1,402,500	1	8.94
5	골드만삭스	1,402,500	1	8.94
8	미래에셋증권	605,804	7	3.86
9	한국투자증권	354,986	9	2.26
10	NH투자증권	305,618	3	1.95
11	신영증권	245,831	4	1.57
12	삼성증권	216,114	4	1.38
13	하나금융투자	204,250	4	1.30
14	SK증권	162,000	2	1.03
15	DB금융투자	133,789	4	0.85
16	하이투자증권	127,500	1	0.81
17	유진투자증권	126,226	4	0.80
18	한양증권	113,400	1	0.72
19	키움증권	63,789	2	0.41
20	IBK투자증권	62,389	2	0.40
21	유안타증권	16,800	1	0.11
22	상상인증권	15,770	1	0.10
23	현대차증권	3,050	1	0.02
총합계		15,688,215	68	100.00

* ECM 딜 인수단 참여에 따른 인수금액 기준 순위
* 점유율은 주관사 지정 거래 총규모 대비 주관사별 주관금액 기준

2022년 1분기 ECM 모집주선 순위

순위	주관사	금액(백만)	건수	점유율(%)
1	유진투자증권	13,811	1	100.00
총합계		13,811	1	100.00

* 인수 금액 제외, 모집주선 금액만을 반영
* 점유율은 주관사 지정 거래 총규모 대비 주관사별 주관금액 기준
* 모집주선실적은 없고 수수료만 받은 주관사는 기재하지 않음.

2022년 1분기 기업공개(IPO) 주관 순위

순위	주관사	금액(백만원)	건수	점유율(%)	조정실적(백만원)
1	KB증권	2,889,304	3	21.52	2,507,057
2	모간스탠리	2,868,750	1	21.37	2,094,217
3	대신증권	1,457,620	3	10.86	1,349,573
4	신한금융투자	1,443,760	3	10.75	1,342,125
5	BOA메릴린치	1,402,500	1	10.45	1,212,441
5	골드만삭스	1,402,500	1	10.45	1,212,441
5	씨티글로벌마켓증권	1,402,500	1	10.45	1,212,441
8	한국투자증권	97,996	7	0.73	470,090
9	미래에셋증권	91,901	3	0.68	355,468
10	하나금융투자	76,750	3	0.57	246,280
11	NH투자증권	76,060	2	0.57	374,480
12	삼성증권	69,450	3	0.52	175,684
13	신영증권	60,942	2	0.45	420,524
14	DB금융투자	46,400	2	0.35	227,977
15	유안타증권	12,000	1	0.09	85,480
16	유진투자증권	10,000	1	0.07	43,224
17	키움증권	6,400	1	0.05	37,049
18	SK증권	6,000	1	0.04	22,230
19	IBK투자증권	5,000	1	0.04	37,049
총합계		13,425,833	40	100.00	13,425,833

* 점유율은 주관사 지정 거래 총규모 대비 주관사별 주관금액 기준
* 조정실적은 명목실적에 수수료율을 토태로 산정한 가중치를 차등 반영한 거래실적. 수수료율이 높은 거래를 주관한 IB일수록 명목실적 대비 조정실적이 높게 책정.

2022년 1분기 기업공개(IPO) 인수 순위

순위	주관사	금액(백만)	건수	점유율(%)
1	KB증권	2,825,554	3	21.05
2	모간스탠리	2,422,500	1	18.04
3	대신증권	1,457,620	3	10.86
4	신한금융투자	1,438,960	3	10.72
5	씨티글로벌마켓증권	1,402,500	1	10.45
5	BOA메릴린치	1,402,500	1	10.45
5	골드만삭스	1,402,500	1	10.45
8	미래에셋증권	216,351	4	1.61
9	하나금융투자	204,250	4	1.52
10	신영증권	188,442	3	1.40
11	하이투자증권	127,500	1	0.95
12	한국투자증권	97,996	7	0.73
13	NH투자증권	76,060	2	0.57
14	삼성증권	69,450	3	0.52
15	DB금융투자	46,400	2	0.35
16	유안타증권	16,800	1	0.13
17	유진투자증권	10,000	1	0.07
18	키움증권	6,400	1	0.05
19	SK증권	6,000	1	0.04
20	IBK투자증권	5,000	1	0.04
21	현대차증권	3,050	1	0.02
총합계		13,425,833	45	100.00

* 기업공개(IPO) 인수단 참여에 따른 인수금액 기준순위
* 점유율은 주관사 지정 거래 총규모 대비 주관사별 주관금액 기준

2022년 1분기 기업공개(IPO) 공동주관 순위

순위	주관사	금액(백만)	건수	점유율(%)
1	대신증권	1,402,500	1	19.97
1	신한금융투자	1,402,500	1	19.97
1	BOA메릴린치	1,402,500	1	19.97
1	골드만삭스	1,402,500	1	19.97
1	씨티글로벌마켓증권	1,402,500	1	19.97
6	삼성증권	4,500	1	0.06
7	KB증권	4,354	1	0.06
총합계		7,021,354	7	100.00

[참고] 2022년 1분기 기업별 기업공개(IPO) 규모 순위

순위	종목명	금액 (백만원)	대표주관사	점유율 (%)
1	LG에너지솔루션	12,750,000	모건스탠리, KB증권	94.97
2	코람코더원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97,500	하나금융투자, 삼성증권	0.73
3	나래나노텍	54,250	미래에셋증권	0.40
4	풍원정밀	45,600	대신증권	0.34
5	이지트로닉스	43,560	NH투자증권	0.32
6	바이오에프디엔씨	36,400	DB금융투자	0.27
7	비씨엔씨	32,500	NH투자증권	0.24
8	스톤브릿지벤처스	32,400	삼성증권, KB증권	0.24
9	케이옥션	32,000	신영증권	0.24
10	세아메카닉스	29,260	신한금융투자	0.22
11	스코넥엔터테인먼트	28,942	신영증권	0.22
12	퓨런티어	24,000	유안타증권, 신한금융투자	0.18
13	공구우먼	22,400	미래에셋증권	0.17
14	유일로보틱스	21,500	한국투자증권	0.16
15	모아데이타	16,000	하나금융투자	0.12
16	아셈스	16,000	한국투자증권	0.12
17	인카금융서비스	15,836	한국투자증권	0.12
18	오토앤	15,251	미래에셋증권	0.11
19	브이씨	15,000	한국투자증권	0.11
20	노을	15,000	한국투자증권	0.11
21	지투파워	14,514	한국투자증권	0.11
22	하나금융21호기업인수목적	12,000	하나금융투자	0.09
23	디비금융제10호기업인수목적	10,000	DB금융투자	0.07
24	유진기업인수목적8호	10,000	유진투자증권	0.07
25	애드바이오텍	9,520	대신증권	0.07
26	한국제10호기업인수목적	9,000	한국투자증권	0.07
27	키움제6호기업인수목적	6,400	키움증권	0.05
28	에스케이증권에이씨피씨 제7호기업인수목적	6,000	SK증권	0.04
29	아이비케이에스 제17호기업인수목적	5,000	IBK투자증권	0.04
합계		13,425,833		100.00

* 점유율은 주관사 지정 거래 총규모 대비 주관사별 주관금액 기준

[참고] 2022년 1분기 기업공개(IPO) 기업별 수수료 순위

순위	종목명	수수료 (백만)	수수료 (bp)	대표주관사
1	LG에너지솔루션	89,250	70.00	모건스탠리, KB증권
2	스코넥엔터테인먼트	2,087	721.00	신영증권
3	코람코더원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1,950	200.00	하나금융투자, 삼성증권
4	이지트로닉스	1,693	388.72	NH투자증권
5	나래나노텍	1,657	305.53	미래에셋증권
6	바이오에프디엔씨	1,496	410.99	DB금융투자
7	비씨엔씨	1,339	412.00	NH투자증권
8	케이옥션	1,318	412.00	신영증권
9	퓨런티어	989	412.00	유안타증권, 신한금융투자
10	유일로보틱스	886	412.00	한국투자증권
11	스톤브릿지벤처스	810	250.00	삼성증권, KB증권
12	세아메카닉스	753	257.50	신한금융투자
13	풍원정밀	730	160.00	대신증권
14	아셈스	692	432.60	한국투자증권
15	오토앤	675	442.90	미래에셋증권
16	모아데이타	659	412.00	하나금융투자
17	공구우먼	646	288.40	미래에셋증권
18	노을	618	412.00	한국투자증권
19	지투파워	598	412.00	한국투자증권
20	인카금융서비스	582	367.50	한국투자증권
21	브이씨	464	309.00	한국투자증권
22	애드바이오텍	381	400.00	대신증권
23	하나금융21호기업인수목적	360	300.00	하나금융투자
24	디비금융제10호기업인수목적	350	350.00	DB금융투자
25	유진기업인수목적8호	350	350.00	유진투자증권
26	키움제6호기업인수목적	300	468.75	키움증권
27	아이비케이에스 제17호기업인수목적	300	600.00	IBK투자증권
28	한국제10호기업인수목적	270	300.00	한국투자증권
29	에스케이증권에이씨피씨 제7호기업인수목적	180	300.00	SK증권

*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경우 공모 후 실제 지급된 수수료만 반영.
* 수수료율(bp)은 각 주관사가 받은 수수료 합을 기준으로 계산.

[참고] 2022년 1분기 기업공개(IPO) 시장별 현황

시장	발행금액 (백만원)	건수	점유율(%)
코스피	12,847,500	2건	95.69
코스닥	578,333	27건	4.31
합계	13,425,833	29건	100.00

2022년 1분기 유상증자(RO) 주관 순위					
순위	주관사	금액 (백만원)	건수	점유율 (%)	조정실적 (백만원)
1	KB증권	556,798	4	25.40	1,264,635
2	미래에셋증권	375,991	3	17.15	198,089
3	한국투자증권	218,730	2	9.98	157,830
4	키움증권	191,298	1	8.73	28,094
4	NH투자증권	191,298	1	8.73	112,378
4	신영증권	191,298	1	8.73	28,094
7	삼성증권	162,960	1	7.43	44,183
8	SK증권	156,000	1	7.12	172,469
9	한양증권	113,400	1	5.17	128,109
10	유진투자증권	18,837	1	0.86	28,374
11	상상인증권	15,770	1	0.72	30,126
총합계		2,192,382	17	100.00	2,192,382

* 유상증자 발행 중 주관사 지정 거래 순위
* 모집주선 금액 제외. 증권신고서상 인수 금액만을 반영
* 금액 및 건수총계는 주관사 지정 거래만을 포함한 수치
* 점유율은 주관사 지정 거래 총규모 대비 주관사별 주관금액 기준
* 조정실적은 명목실적에 수수료율을 토태로 산정한 가중치를 차등 반영한 거래실적. 수수료율이 높은 거래를 주관한 IB일수록 명목실적 대비 조정실적이 높게 책정.

2022년 1분기 유상증자(RO) 인수 순위				
순위	주관사	금액(백만)	건수	점유율(%)
1	KB증권	521,372	4	23.78
2	미래에셋증권	389,453	3	17.76
3	한국투자증권	256,990	2	11.72
4	NH투자증권	229,558	1	10.47
5	SK증권	156,000	1	7.12
6	삼성증권	146,664	1	6.69
7	한양증권	113,400	1	5.17
8	유진투자증권	76,226	2	3.48
9	IBK투자증권	57,389	1	2.62
9	신한금융투자	57,389	1	2.62
9	DB금융투자	57,389	1	2.62
12	키움증권	57,389	1	2.62
12	신영증권	57,389	1	2.62
14	상상인증권	15,770	1	0.72
총합계		2,192,382	21	100.00

* 유상증자 발행 중 주관사 지정 거래 순위
* 모집주선 금액 제외. 증권신고서상 인수 금액만을 반영
* 금액 및 건수총계는 주관사 지정 거래만을 포함한 수치
* 점유율은 주관사 지정 거래 총규모 대비 주관사별 주관금액 기준

2022년 1분기 유상증자(RO) 모집주선 순위				
순위	주관사	금액(백만)	건수	점유율(%)
1	유진투자증권	13,811	1	100.00
총합계		13,811	1	100.00

* 인수 금액 제외, 단순 모집주선 금액만을 반영
* 점유율은 주관사 지정 거래 총규모 대비 주관사별 주관금액 기준
* 모집주선실적은 없고 수수료만 받은 주관사는 기재하지 않음.

[참고] 2022년 1분기 기업별 유상증자(RO) 발행규모 순위				
순위	종목명	금액 (백만원)	건수	주관 및 주선
1	아시아나항공	1,500,000	1	
2	두산중공업	1,147,790	1	NH투자,KB 한국투자,신영 미래에셋,키움
3	NH농협금융지주	1,112,100	1	
4	지엠티홀딩스	780,100	1	
5	대한전선	488,880	1	미래에셋, 삼성,KB
6	쿠팡	479,750	1	
7	NH투자증권	400,000	1	
8	에스에스지닷컴	300,000	1	
9	삼강엠앤티	292,595	1	
10	티빙	250,000	1	

2022년 1분기 주식연계증권(ELB) 주관 순위					
순위	주관사	금액 (백만원)	건수	점유율 (%)	조정실적 (백만원)
1	유진투자증권	40,000	1	57.14	36,842
2	DB금융투자	30,000	1	42.86	33,158
총합계		70,000	2	100.00	70,000

*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전환사채(CB), 교환사채(EB) 합계
* 단순모집주선 금액 제외, 증권신고서상 인수 금액만을 반영
* 금액 및 건수총계는 주관사 지정 거래만을 포함한 수치
* 점유율은 주관사 지정 거래 총규모 대비 주관사별 주관금액 기준
* 조정실적은 명목실적에 수수료율을 토태로 산정한 가중치를 차등 반영한 거래실적. 수수료율이 높은 거래를 주관한 IB일수록 명목실적 대비 조정실적이 높게 책정.

2022년 1분기 주식연계증권(ELB) 모집주선 순위				
순위	주관사	금액(백만원)	건수	점유율(%)
-	-	-	-	-
총합계		-	-	-

* 인수 금액 제외, 단순 모집주선 금액만을 반영
* 점유율은 주관사 지정 거래 총규모 대비 주관사별 주관금액 기준

2022년 1분기 주식연계증권(ELB) 인수 순위				
순위	주관사	금액(백만)	건수	점유율(%)
1	유진투자증권	40,000	1	57.14
2	DB금융투자	30,000	1	42.86
총합계		70,000	2	100.00

* 주식연계증권(ELB) 인수단 참여에 따른 인수금액 기준 순위
* 점유율은 주관사 지정 거래 총규모 대비 주관사별 주관금액 기준

2022년 1분기 전환사채(CB) 주관 순위					
순위	주관사	금액 (백만원)	건수	점유율 (%)	조정실적 (백만원)
-	-	-	-	-	-
총합계		-	-	-	-

* 전환사채(CB) 발행 중 주관사 지정 거래 순위(공모 및 사모, 소액공모 포함)
* 단순모집주선 금액 제외, 증권신고서상 인수 금액만을 반영
* 금액 및 건수총계는 주관사 지정 거래만을 포함한 수치
* 점유율은 주관사 지정 거래 총규모 대비 주관사별 주관금액 기준
* 조정실적은 명목실적에 수수료율을 토태로 산정한 가중치를 차등 반영한 거래실적. 수수료율이 높은 거래를 주관한 IB일수록 명목실적 대비 조정실적이 높게 책정.

2022년 1분기 전환사채(CB) 인수 순위				
순위	주관사	금액(백만원)	건수	점유율(%)
-	-	-	-	-
총합계		-	-	-

* 전환사채(CB) 인수단 참여에 따른 인수금액 기준 순위
* 점유율은 주관사 지정 거래 총규모 대비 주관사별 주관금액 기준

2022년 1분기 전환사채(CB) 모집주선 순위				
순위	주관사	금액(백만원)	건수	점유율(%)
-	-	-	-	-
총합계		-	-	-

* 인수 금액 제외, 단순 모집주선 금액만을 반영
* 점유율은 주관사 지정 거래 총규모 대비 주관사별 주관금액 기준

2022년 1분기 신주인수권부사채(BW) 주관 순위					
순위	주관사	금액 (백만원)	건수	점유율 (%)	조정실적 (백만원)
1	유진투자증권	40,000	1	57.14	36,842
2	DB금융투자	30,000	1	42.86	33,158
총합계		70,000	2	100.00	70,000

*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중 주관사 지정 거래 순위(공모 및 사모, 소액공모 포함)
* 단순모집주선 금액 제외, 증권신고서상 인수 금액만을 반영
* 금액 및 건수총계는 주관사 지정 거래만을 포함한 수치
* 점유율은 주관사 지정 거래 총규모 대비 주관사별 주관금액 기준
* 조정실적은 명목실적에 수수료율을 토태로 산정한 가중치를 차등 반영한 거래실적. 수수료율이 높은 거래를 주관한 IB일수록 명목실적 대비 조정실적이 높게 책정.

[참고] 2022년 1분기 기업별 전환사채(CB) 발행규모 순위				
순위	종목명	금액(백만원)	건수	주관 및 주선
1	두올물산	340,014	1	
2	천보	250,000	1	
3	서진시스템	170,000	2	
4	삼강엠앤티	166,857	2	
5	티맥스소프트	100,000	4	
6	비덴트	100,000	2	
7	코리아센터	100,000	1	
8	노터스	81,100	2	
9	컴투스홀딩스	60,000	1	
10	아이에이치큐	49,600	3	

2022년 1분기 신주인수권부사채(BW) 인수 순위				
순위	주관사	금액(백만)	건수	점유율(%)
1	유진투자증권	40,000	1	57.14
2	DB금융투자	30,000	1	42.86
총합계		70,000	2	100.00

* 신주인수권부사채(BW) 인수단 참여에 따른 인수금액 기준 순위
* 점유율은 주관사 지정거래 총규모 대비 주관사별 주관금액 기준

2022년 1분기 신주인수권부사채(BW) 모집주선 순위				
순위	주관사	금액(백만원)	건수	점유율(%)
-	-	-	-	-
총합계		-	-	-

* 인수 금액 제외, 단순 모집주선 금액만을 반영
* 점유율은 주관사 지정 거래 총규모 대비 주관사별 주관금액 기준

2022년 1분기 교환사채(EB) 주관 순위					
순위	주관사	금액(백만원)	건수	점유율(%)	조정실적(백만원)
-	-	-	-	-	-
총합계		-	-	-	-

* 교환사채(EB) 발행 중 주관사 지정 거래 순위(공모 및 사모, 소액공모 포함)
* 대표주관과 공동주관 별도 집계 후 전체주관실적에서 합산
* 점유율은 주관사 지정 거래 총규모 대비 주관사별 주관금액 기준
* 단순모집주선 금액 제외, 증권신고서상 인수 금액만을 반영
* 금액 및 건수총계는 주관사 지정 거래만을 포함한 수치

[참고] 2022년 1분기 기업별 교환사채(EB) 발행규모 순위				
순위	종목명	금액(백만원)	건수	주관 및 주선
1	ISC	20,000	2	
2	브이티지엠피	10,600	1	
3	조광페인트	10,000	1	
4	푸드나무	6,500	1	
5	와이팜	6,000	1	
6	상상인	5,769	1	
7	피나클테크	3,000	1	

[참고] 2022년 1분기 기업별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규모 순위				
순위	종목명	금액(백만원)	건수	주관 및 주선
1	코리아센터	100,000	1	
2	케이에이치필룩스	76,000	1	
3	아리바이오	61,200	1	
4	천보	50,000	1	
5	아스트	40,000	1	유진투자
6	대유플러스	30,000	1	DB금융투자
7	선데이토즈	30,000	1	
8	티사이언티픽	30,000	1	
9	에이치엘비	25,200	1	
10	아름홀딩스	22,700	1	

2022년 1분기 교환사채(EB) 인수 순위				
순위	주관사	금액(백만원)	건수	점유율(%)
-	-	-	-	-
총합계		-	-	-

* 교환사채(EB) 인수단 참여에 따른 인수금액 기준 순위
* 점유율은 주관사 지정 거래 총규모 대비 주관사별 주관금액 기준

2022년 1분기 블록딜 주관 순위				
순위	주관사	금액(백만)	건수	점유율(%)
1	골드만삭스	732,483	3	30.44
2	JP모간	537,067	2	22.32
3	KB증권	511,833	2	21.27
4	모간스탠리	329,650	3	13.70
5	씨티글로벌마켓증권	135,700	1	5.64
6	삼성증권	79,733	1	3.31
7	미래에셋증권	79,733	1	3.31
총합계		2,406,200	13	100.00

* 점유율은 총금액 대비 사별 거래금액 기준
* 500억원 이상 거래 한정

2022년 1분기 교환사채(EB) 모집주선 순위				
순위	주관사	금액(백만원)	건수	점유율(%)
-	-	-	-	-
총합계		-	-	-

* 인수금액 제외, 단순 모집주선 금액만을 반영
* 점유율은 주관사 지정 거래 총규모 대비 주관사별 주관금액 기준

1st quarter of 2022
thebell League Table

Debt Capital Markets

Deal list 집계기준

- 국내 채권시장에서 공모로 발행된 일반 회사채(SB)와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대상으로 한다.
- 발행 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만기가 6개월 미만인 채권은 제외한다.
- 일반회사채(SB)에는 무보증채권과 보증채권을 모두 포함한다. 단 공사채는 제외한다.
- 옵션부(조기상환부채권, 수시상환채권) 채권을 집계 대상에 포함하되, 옵션 내용을 별도 표기한다.
- 주식관련 사채(CB, BW,EB)는 Equity Capital Market 리그테이블에서 별도 집계한다.
- 일반 회사채 중 금융채를 별도 집계하되, 은행채는 제외한다.
- 자산유동화증권(ABS) 중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은 제외하고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한 주택저당증권(MBS)은 별도 집계한다.
- 일반 회사채와 자산유동화증권 중 대표주관사가 주관하고 인수사가 인수한 후순위채 또는 신종자본증권을 포함한다.
- 발행일은 납입일 기준으로 하며 발행 스프레드는 국고채 3년물을 기준으로 환산해 작성한다.

League Table 작성기준

- 대표주관실적과 인수실적을 대상으로 리그테이블을 산정한다. 공동주관 실적은 집계하지 않는다.
- 일반회사채(SB) 대표주관실적은 수요예측을 실시한 채권에 한해 리그테이블을 산정한다. 일괄신고채권의 경우에도 수요예측을 실시할 경우 대표주관 실적에 포함한다. 단 인수실적의 경우 수요예측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
- 여신전문금융사채권(FB)은 시장 특성을 고려해 수요예측 여부와 상관없이 대표주관 실적을 산정한다.
- 모집주선 실적은 대표주관 실적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 집계한다. 종합 성적에도 반영하지 않는다.
- 대표주관 실적과 인수실적은 원화를 기준으로 한다. 외화표시 채권의 경우 증권신고서에 표기된 환율을 기준으로 원화로 환산한다.
- 대표주관 실적은 총발행금액을 대표주관사 수에 따라 비례 안분한다.
- 대표주관사에 대한 실적 배분은 해당 회사채의 회차별로 한다. 회차 내에서 트렌치가 분리돼 발행된 채권이라도 대표주관사 업무를 수행한 모든 대표주관사 수에 따라 비례 안분한다.
  인수실적은 증권신고서에 표기된 각 인수사의 인수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대표주관실적과 인수실적은 각 대표주관사 또는 인수사가 수취한 수수료를 반영해 조정한다. 이때 수수료는 시장평균 수수료 대비 해당 대표주관 또는 인수사의 상대 수수료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대표주관의 경우 수수료 수취가 일반화되는 적절한 시점부터 조정실적을 산정한다.

Overview

2022년 1분기 회사채 발행액이 전년 동기 대비 약 2조7000억원 감소. 금리 상승, 안전 사고,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유발한 수급 불안정이 전체 발행 규모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상대적으로 수요가 견조한 ESG채권도 업황 악화를 피해가지 못함.

수급 불안정은 개별 기업의 발행 조건을 크게 악화. 특히 A등급 발행사는 자산운용사와 증권사 리테일 수요로 간신히 모집액을 채울 정도로 기관 마케팅과 프라이싱에 어려움을 겪음. 이 과정에서 모집액 완판에 실패하는 발행사도 속출.

◇2년 연속 40조원 돌파 실패

더벨이 집계한 2022년 1분기 국내 공모채 발행액은 총 38조5988억원. 41조2534억원을 기록한 전년 동기 대비 약 2조6500억원 감소. 연초 효과가 득세한 1월을 정점으로 매월 발행량이 10% 넘게 줄어든 결과 2년 연속 40조원 돌파에 실패.

종류별로 일반 회사채(SB) 20조1340억원, 여전채(FB) 15조9214억원, 자산유동화증권(ABS) 2조5434억원이 각각 시장에 출회. 일반 회사채, 여전채, 자산유동화증권 모두 2021년 1분기보다 발행 규모가 감소. 특히 크레딧 스프레드 확대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진 여전채가 가장 큰 2조원의 감소폭을 보임.

지속된 금리 상승이 발행 감소를 유발했다고 관련 업계에서는 분석. 한국은행은 2021년 11월과 2022년 1월 기준금리를 각각 25bp씩 인상. 그 결과 0.75%였던 기준금리가 불과 석달만에 1.25%로 상승. 이 과정에서 시장의 바로미터라 할 수 있는 AA- 등급 회사채 3년물의 금리는 2021년 10월 초 2.2%에서 2022년 3월 말 3.3%까지 급등.

급격한 금리 상승은 기발행 채권의 적잖은 평가손실을 유발. 이는 주요 기관의 투자 심리 위축으로 전이. 보유 중인 회사채에서 손실을 본 투자자 입장에서는 신규 매입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음. 실제로 국민연금과 우정사업본부를 비롯한 시장의 큰손은 연초 효과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입찰 참여 횟수를 크게 줄임.

1월과 2월에 잇달아 터진 HDC현대산업개발과 여천NCC의 안전 사고도 발행 감소와 수급 불안정에 적잖은 영향을 미친 요인. 주요 기관의 경영진은 안전 사고 발발 후 내부 투자 승인 프로세스를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라는 지시를 하달. HDC그룹의 경우 계열사 전체 회사채에 대해 매수 금지령이 떨어지기도 했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20대 대통령 선거, 유가 상승 등도 발행 감소를 유발한 요인으로 꼽힘. 특히 이들 이벤트가 집중된 3월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3조1200억원의 감소폭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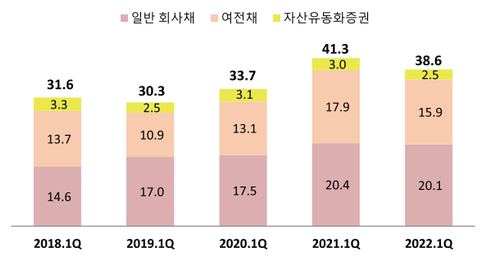
이러한 불황은 상대적으로 견조한 수급을 보이던 ESG채권 열기도 식게 만들었음. 2022년 1분기 녹색채권, 사회적채권, 지속가능채권의 발행액은 총 4조2330억원에 그침. 7조2100억원에 달했던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

증권업계 관계자는 "기준금리가 1.25%까지 오른 후 한 차례 동결이 있기는 했으나 전반적인 상승 기조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은 높다"며 "정권 교체라는 정치적 변수가 발생했음에도 대다수의 전문가가 연말 기준금리 1.75%를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

이어 "금리 인상에 대비해 조건이 조금이라도 유리할 때 미리 현금을 마련해두려는 발행사가 상당히 많다"며 "다만 기관이 계속해서 보수적인 투자 기조를 유지한다면 신용등급과 만기에 따라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

1분기 국내 회사채 발행 추이

(단위:조원)



◇유동성 미스매칭, 미매각 속출

수급 불안정은 개별 기업의 발행 조건을 크게 악화. 1분기에 회사채 수요예측을 실시한 발행사 대부분이 개별 민평보다 20~30bp가량 높은 절대금리를 확정. 민평 대비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한 곳은 S-OIL,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정도.

약세 발행은 A등급 회사채에서 두드러짐. AA등급 대비 스프레드 변동폭이 커진 점을 우려한 투자자는 A등급 회사채 입찰에 거의 불참. 이로 인해 A등급 발행사 대부분이 자산운용사와 증권사 리테일 수요만으로 간신히 모집액을 채움. AA등급에 인접한 A+ 발행사도 LG디스플레이를 제외하고는 모두 가산금리를 밴드 최상단에서 확정.

수요예측에서 받은 자금이 모집액을 하회하는 미매각도 속출. CJ프레시웨이, 한국토지신탁, 코리아에너지터미널, 울산GPS, SK에코플랜트, 여천NCC 등이 모집액 완판에 실패. 특히 안전 사고에도 수요예측을 강행한 여천NCC는 1건의 주문도 받지 못함.

연초 효과로 유동성이 풍부해지는 1분기에 10건에 육박하는 미매각이 발생한 것은 리그테이블 집계 이래 2022년이 처음. 코로나19 발발로 시장 펀더멘털 자체가 흔들린 2020년 1분기에도 미매각은 2건에 불과.

시장 관계자는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발행사와 기관투자자 사이의 유동성이 매칭이 되지 않는 현상이 1분기 내내 이어졌다"며 "그럼에도 2분기에 사상 최대 규모의 만기채 물량이 도래하는 만큼 상반기 발행액은 2021년 수준을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

2022년 1분기 수요예측 미매각 내역

(단위:억원)

발행사	발행일	만기일	모집액	수요예측	청약	미청약
여천NCC	22.03.02	25.02.28	1,200	-	-	1,200
SK에코플랜트	22.03.02	24.02.29	500	420	320	180
	22.03.02	25.02.28	1,000	760	760	240
울산GPS	22.02.25	25.02.25	1,000	300	300	700
	22.02.25	27.02.25	500	-	-	500
코리아에너지터미널	22.02.23	25.02.21	1,000	800	700	300
한국토지신탁	22.02.23	24.02.23	600	400	420	280
CJ프레시웨이	22.01.20	25.01.20	1,000	520	520	480

2022년 1분기 국내채권 대표주관 순위				
순위	주관사	금액(백만)	건수	점유율(%)
1	KB증권	7,667,531	85	21.99
2	NH투자증권	7,663,017	77	21.98
3	한국투자증권	4,573,698	64	13.12
4	SK증권	2,736,167	16	7.85
5	신한금융투자	2,208,514	28	6.33
6	키움증권	1,912,100	24	5.48
7	미래에셋증권	1,436,000	13	4.12
8	삼성증권	1,424,333	13	4.08
9	한양증권	1,200,000	7	3.44
10	교보증권	1,121,000	9	3.21
11	이베스트투자증권	765,000	8	2.19
12	한화투자증권	413,500	3	1.19
13	하나금융투자	241,667	2	0.69
14	DB금융투자	221,000	5	0.63
15	다올투자증권	204,900	4	0.59
16	IBK투자증권	204,431	6	0.59
17	하이투자증권	159,681	6	0.46
18	대신증권	152,348	6	0.44
19	유진투자증권	120,600	5	0.35
20	우리종합금융	103,181	4	0.30
20	유안타증권	103,181	4	0.30
22	부국증권	70,000	2	0.20
23	케이프투자증권	60,000	1	0.17
24	메리츠증권	40,000	1	0.11
25	현대차증권	20,000	1	0.06
26	흥국증권	17,500	2	0.05
26	신영증권	17,500	1	0.05
28	코리아에셋투자증권	12,000	1	0.03
총합계		34,868,849	398	100.00

* 일반기업 회사채(SB), 여신전문금융회사채권(FB), 자산유동화증권(ABS)을 포함한 국내 발행 채권을 집계
* 사모발행 채권, 공사채, 은행채는 제외
*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교환사채(EB) 등 주식 관련 사채는 제외

2022년 1분기 국내채권 인수 순위						
순위	인수사	금액 (백만원)	점유율 (%)	건수	평균 bp	조정실적 (백만)
1	한국투자증권	4,462,295	11.56	120	12.91	4,021,989
2	KB증권	4,399,280	11.40	117	15.84	4,163,194
3	NH투자증권	3,443,300	8.92	108	15.97	3,321,602
4	SK증권	3,295,500	8.54	67	16.39	3,563,287
5	신한금융투자	1,895,967	4.91	49	16.81	2,035,055
6	다올투자증권	1,769,900	4.59	68	9.17	1,546,378
7	한양증권	1,743,500	4.52	66	12.49	1,881,665
8	교보증권	1,742,000	4.51	48	12.15	1,423,317
9	키움증권	1,607,500	4.16	57	14.28	1,562,858
10	이베스트투자증권	1,383,000	3.58	34	10.26	1,438,756
11	부국증권	1,096,000	2.84	50	12.39	1,347,753
12	현대차증권	1,030,000	2.67	29	16.82	1,133,341
13	한화투자증권	1,017,500	2.64	42	16.88	1,081,469
14	미래에셋증권	1,011,500	2.62	39	14.19	973,807
15	삼성증권	962,000	2.49	28	20.40	1,112,151
16	하이투자증권	860,800	2.23	37	15.03	967,049
17	하나금융투자	755,000	1.96	23	15.41	690,449
18	BNK투자증권	630,000	1.63	20	8.60	434,314
19	메리츠증권	599,000	1.55	21	15.99	579,815
20	유진투자증권	582,500	1.51	34	13.02	620,669
21	흥국증권	539,000	1.40	34	12.04	706,293
22	IBK투자증권	535,475	1.39	30	15.44	615,257
23	신영증권	522,000	1.35	36	12.81	474,579
24	DB금융투자	506,000	1.31	27	16.08	545,781
25	대신증권	476,082	1.23	30	14.52	421,504
26	유안타증권	385,007	1.00	25	12.95	429,505
27	한국산업은행	334,000	0.87	10	9.49	365,762
28	케이알투자증권	230,000	0.60	13	11.96	288,050
29	케이아이디비채권중개	220,000	0.57	15	8.98	209,167
30	케이프투자증권	200,000	0.52	17	13.98	281,475
31	우리종합금융	133,742	0.35	5	4.12	37,608
32	DS투자증권	111,000	0.29	7	13.99	168,963
33	코리아에셋투자증권	70,000	0.18	7	15.68	108,098
34	카카오페이증권	50,000	0.13	3	14.00	47,890
총합계		38,598,849	100.00	1,316	14.24	38,598,849

* 일반기업 회사채(SB), 여신전문금융회사채권(FB), 자산유동화증권(ABS)을 포함한 국내 발행 채권을 집계
* 사모발행 채권, 공사채, 은행채는 제외
*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교환사채(EB) 등 주식 관련 사채는 제외

2022년 1분기 국내채권(ABS 제외) 대표주관 순위				
순위	주관사	금액(백만)	건수	점유율(%)
1	NH투자증권	7,663,017	77	23.71
2	KB증권	7,324,350	80	22.66
3	한국투자증권	4,470,517	60	13.83
4	SK증권	2,004,167	13	6.20
5	키움증권	1,885,600	23	5.83
6	신한금융투자	1,541,333	22	4.77
7	미래에셋증권	1,436,000	13	4.44
8	삼성증권	1,424,333	13	4.41
9	한양증권	1,200,000	7	3.71
10	교보증권	1,050,000	8	3.25
11	이베스트투자증권	765,000	8	2.37
12	한화투자증권	355,500	2	1.10
13	하나금융투자	241,667	2	0.75
14	DB금융투자	221,000	5	0.68
15	다올투자증권	204,900	4	0.63
16	유진투자증권	120,600	5	0.37
17	IBK투자증권	101,250	2	0.31
18	부국증권	70,000	2	0.22
19	케이프투자증권	60,000	1	0.19
20	대신증권	49,167	2	0.15
21	메리츠증권	40,000	1	0.12
22	하이투자증권	30,000	1	0.09
23	현대차증권	20,000	1	0.06
24	흥국증권	17,500	2	0.05
24	신영증권	17,500	1	0.05
26	코리아에셋투자증권	12,000	1	0.04
총합계		32,325,400	356	100.00

* 일반기업 회사채(SB)와 여신전문금융회사채권(FB) 발행을 집계(자산유동화증권은 제외)
* 사모발행 채권, 공사채, 은행채는 제외
*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교환사채(EB) 등 주식 관련 사채는 제외

2022년 1분기 국내채권(ABS 제외) 인수 순위						
순위	인수사	금액 (백만원)	점유율 (%)	건수	평균 bp	조정실적 (백만)
1	한국투자증권	4,333,300	12.02	115	13.22	3,972,974
2	KB증권	4,032,400	11.18	111	16.93	3,965,820
3	NH투자증권	3,408,300	9.45	107	16.03	3,272,708
4	SK증권	2,775,500	7.70	64	17.59	2,836,865
5	다올투자증권	1,769,900	4.91	68	9.17	1,546,378
6	한양증권	1,743,500	4.84	66	12.49	1,881,665
7	교보증권	1,671,000	4.63	47	12.67	1,423,317
8	키움증권	1,545,000	4.29	55	13.82	1,337,947
9	신한금융투자	1,482,000	4.11	41	19.35	1,587,904
10	이베스트투자증권	1,383,000	3.84	34	10.26	1,438,756
11	부국증권	1,096,000	3.04	50	12.39	1,347,753
12	현대차증권	1,030,000	2.86	29	16.82	1,133,341
13	삼성증권	962,000	2.67	28	20.40	1,112,151
14	미래에셋증권	961,500	2.67	38	14.41	903,958
15	한화투자증권	959,500	2.66	41	16.86	941,772
16	하이투자증권	711,000	1.97	31	16.19	767,441
17	하나금융투자	710,000	1.97	22	15.75	627,585
18	BNK투자증권	630,000	1.75	20	8.60	434,314
19	메리츠증권	599,000	1.66	21	15.99	579,815
20	유진투자증권	582,500	1.62	34	13.02	620,669
21	흥국증권	539,000	1.49	34	12.04	706,293
22	신영증권	522,000	1.45	36	12.81	474,579
23	DB금융투자	506,000	1.40	27	16.08	545,781
24	IBK투자증권	382,000	1.06	25	20.07	531,317
25	대신증권	338,000	0.94	25	19.11	358,519
26	한국산업은행	239,000	0.66	9	9.29	233,050
27	유안타증권	233,000	0.65	20	18.83	345,565
28	케이알투자증권	230,000	0.64	13	11.96	288,050
29	케이아이디비채권중개	220,000	0.61	15	8.98	209,167
30	케이프투자증권	200,000	0.55	17	13.98	281,475
31	DS투자증권	111,000	0.31	7	13.99	168,963
32	코리아에셋투자증권	70,000	0.19	7	15.68	108,098
33	카카오페이증권	50,000	0.14	3	14.00	47,890
34	우리종합금융	30,000	0.08	1	15.00	23,517
총합계		36,055,400	100.00	1,261	14.74	36,055,400

* 일반기업 회사채(SB)와 여신전문금융회사채권(FB) 발행을 집계(자산유동화증권은 제외)
* 사모발행 채권, 공사채, 은행채는 제외
*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교환사채(EB) 등 주식 관련 사채는 제외

2022년 1분기 국내채권(ABS, FB 제외) 대표주관 순위				
순위	주관사	금액(백만)	건수	점유율(%)
1	KB증권	3,405,350	44	20.76
2	NH투자증권	3,013,017	39	18.37
3	한국투자증권	2,595,517	35	15.82
4	SK증권	1,999,167	12	12.19
5	삼성증권	1,189,833	11	7.25
6	키움증권	1,122,100	17	6.84
7	신한금융투자	1,036,333	17	6.32
8	교보증권	450,000	2	2.74
9	미래에셋증권	386,000	6	2.35
10	한화투자증권	355,500	2	2.17
11	한양증권	300,000	1	1.83
12	하나금융투자	241,667	2	1.47
13	DB금융투자	131,000	2	0.80
14	대신증권	49,167	2	0.30
15	IBK투자증권	41,250	1	0.25
16	메리츠증권	40,000	1	0.24
17	유진투자증권	30,600	2	0.19
18	신영증권	17,500	1	0.11
총합계		16,404,000	197	100.00

* 일반기업 회사채(SB) 발행을 집계(여신전문금융회사채권과 자산유동화증권은 제외)
* 사모발행 채권, 공사채, 은행채는 제외
*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교환사채(EB) 등 주식 관련 사채는 제외

2022년 1분기 국내채권(ABS, FB 제외) 인수 순위						
순위	인수사	금액(백만원)	점유율(%)	건수	평균 bp	조정실적(백만)
1	KB증권	3,211,400	15.95	63	19.07	3,200,776
2	NH투자증권	2,438,300	12.11	57	19.37	2,468,638
3	SK증권	2,190,500	10.88	31	19.98	2,287,165
4	한국투자증권	2,108,300	10.47	53	18.94	2,086,747
5	신한금융투자	1,357,000	6.74	35	19.97	1,416,276
6	키움증권	938,500	4.66	36	18.56	910,372
7	교보증권	861,000	4.28	13	18.08	813,690
8	삼성증권	857,500	4.26	23	21.11	945,908
9	현대차증권	750,000	3.73	15	17.73	695,060
10	한화투자증권	729,500	3.62	27	19.84	756,544
11	한양증권	593,000	2.95	14	14.53	450,430
12	하나금융투자	580,000	2.88	16	17.97	544,812
13	미래에셋증권	531,500	2.64	22	20.09	557,981
14	하이투자증권	395,000	1.96	14	21.71	448,131
15	메리츠증권	379,000	1.88	8	21.57	427,227
16	DB금융투자	376,000	1.87	17	15.97	313,770
17	대신증권	298,000	1.48	23	20.44	318,264
18	IBK투자증권	262,000	1.30	17	20.43	279,722
19	다올투자증권	245,000	1.22	8	15.82	202,508
20	신영증권	198,000	0.98	17	22.60	233,864
21	BNK투자증권	160,000	0.79	4	17.19	143,715
22	유진투자증권	152,500	0.76	14	23.75	189,286
23	부국증권	150,000	0.75	8	15.33	120,198
24	이베스트투자증권	130,000	0.65	8	14.23	96,681
25	유안타증권	113,000	0.56	11	20.61	121,714
26	카카오페이증권	40,000	0.20	2	12.50	26,130
27	우리종합금융	30,000	0.15	1	15.00	23,517
28	케이프투자증권	20,000	0.10	2	20.00	20,904
29	코리아에셋투자증권	10,000	0.05	1	20.00	10,452
29	케이알투자증권	10,000	0.05	1	20.00	10,452
29	케이아이디비채권중개	10,000	0.05	1	10.00	5,226
32	한국산업은행	9,000	0.04	1	16.67	7,839
총합계		20,134,000	100.00	563	19.14	20,134,000

* 일반기업 회사채(SB) 발행을 집계(여신전문금융회사채권과 자산유동화증권은 제외)
* 사모발행 채권, 공사채, 은행채는 제외
*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교환사채(EB) 등 주식 관련 사채는 제외

2022년 1분기 여신전문금융회사채권(FB) 대표주관 순위				
순위	주관사	금액(백만)	건수	점유율(%)
1	NH투자증권	4,650,000	38	29.21
2	KB증권	3,919,000	36	24.61
3	한국투자증권	1,875,000	25	11.78
4	미래에셋증권	1,050,000	7	6.59
5	한양증권	900,000	6	5.65
6	이베스트투자증권	765,000	8	4.80
7	키움증권	763,500	6	4.80
8	교보증권	600,000	6	3.77
9	신한금융투자	505,000	5	3.17
10	삼성증권	234,500	2	1.47
11	다올투자증권	204,900	4	1.29
12	DB금융투자	90,000	3	0.57
12	유진투자증권	90,000	3	0.57
14	부국증권	70,000	2	0.44
15	IBK투자증권	60,000	1	0.38
15	케이프투자증권	60,000	1	0.38
17	하이투자증권	30,000	1	0.19
18	현대차증권	20,000	1	0.13
19	흥국증권	17,500	2	0.11
20	코리아에셋투자증권	12,000	1	0.08
21	SK증권	5,000	1	0.03
총합계		15,921,400	159	100.00

* 사모 발행은 제외

2022년 1분기 여신전문금융회사채권(FB) 인수 순위						
순위	인수사	금액(백만원)	점유율(%)	건수	평균 bp	조정실적(백만)
1	한국투자증권	2,225,000	13.97	62	7.79	1,886,227
2	다올투자증권	1,524,900	9.58	60	8.10	1,343,870
3	이베스트투자증권	1,253,000	7.87	26	9.84	1,342,075
4	한양증권	1,150,500	7.23	52	11.43	1,431,235
5	NH투자증권	970,000	6.09	50	7.62	804,070
6	부국증권	946,000	5.94	42	11.93	1,227,554
7	KB증권	821,000	5.16	48	8.56	765,044
8	교보증권	810,000	5.09	34	6.92	609,627
9	키움증권	606,500	3.81	19	6.48	427,575
10	SK증권	585,000	3.67	33	8.64	549,701
11	흥국증권	539,000	3.39	34	12.04	706,293
12	BNK투자증권	470,000	2.95	16	5.68	290,599
13	유진투자증권	430,000	2.70	20	9.22	431,383
13	미래에셋증권	430,000	2.70	16	7.40	345,977
15	신영증권	324,000	2.03	19	6.83	240,715
16	하이투자증권	316,000	1.98	17	9.29	319,311
17	현대차증권	280,000	1.76	14	14.39	438,281
18	한화투자증권	230,000	1.44	14	7.40	185,228
18	한국산업은행	230,000	1.44	8	9.00	225,211
20	메리츠증권	220,000	1.38	13	6.38	152,589
20	케이알투자증권	220,000	1.38	12	11.60	277,598
22	케이아이디비채권중개	210,000	1.32	14	8.93	203,941
23	케이프투자증권	180,000	1.13	15	13.31	260,571
24	하나금융투자	130,000	0.82	6	5.85	82,773
24	DB금융투자	130,000	0.82	10	16.40	232,011
26	신한금융투자	125,000	0.79	6	12.62	171,628
27	유안타증권	120,000	0.75	9	17.15	223,851
27	IBK투자증권	120,000	0.75	8	19.27	251,595
29	DS투자증권	111,000	0.70	7	13.99	168,963
30	삼성증권	104,500	0.66	5	14.62	166,243
31	코리아에셋투자증권	60,000	0.38	6	14.96	97,646
32	대신증권	40,000	0.25	2	9.25	40,255
33	카카오페이증권	10,000	0.06	1	20.00	21,760
총합계		15,921,400	100.00	698	9.19	15,921,400

* 사모 발행은 제외

2022년 1분기 자산유동화증권(ABS) 대표주관 순위				
순위	주관사	금액(백만)	건수	점유율(%)
1	SK증권	732,000	3	28.78
2	신한금융투자	667,181	6	26.23
3	KB증권	343,181	5	13.49
4	하이투자증권	129,681	5	5.10
5	유안타증권	103,181	4	4.06
5	대신증권	103,181	4	4.06
5	IBK투자증권	103,181	4	4.06
5	우리종합금융	103,181	4	4.06
9	한국투자증권	103,181	4	4.06
10	교보증권	71,000	1	2.79
11	한화투자증권	58,000	1	2.28
12	키움증권	26,500	1	1.04
총합계		2,543,449	42	100.00

* 공모 발행 자산유동화유가증권 대상(CBO를 포함하며, ABCP는 제외)
* 주택저당채권(MBS)은 별도 집계함

2022년 1분기 자산유동화증권(ABS) 인수 순위						
순위	인수사	금액(백만원)	점유율(%)	건수	평균 bp	조정실적(백만)
1	SK증권	520,000	20.44	3	10.00	726,422
2	신한금융투자	413,967	16.28	8	7.73	447,150
3	KB증권	366,880	14.42	6	3.85	197,373
4	IBK투자증권	153,475	6.03	5	3.92	83,939
5	유안타증권	152,007	5.98	5	3.95	83,939
6	하이투자증권	149,800	5.89	6	9.54	199,608
7	대신증권	138,082	5.43	5	3.27	62,985
8	한국투자증권	128,995	5.07	5	2.72	49,015
9	우리종합금융	103,742	4.08	4	0.97	14,091
10	한국산업은행	95,000	3.74	1	10.00	132,712
11	교보증권	71,000	2.79	1	0.00	0
12	키움증권	62,500	2.46	2	25.76	224,911
13	한화투자증권	58,000	2.28	1	17.24	139,697
14	미래에셋증권	50,000	1.97	1	10.00	69,848
15	하나금융투자	45,000	1.77	1	10.00	62,863
16	NH투자증권	35,000	1.38	1	10.00	48,894
총합계		2,543,449	100.00	55	7.16	2,543,449

* 공모 발행 자산유동화유가증권 대상(CBO를 포함하며, ABCP는 제외)
* 주택저당채권(MBS)은 별도 집계함

2022년 1분기 원화채 대표주관 순위				
순위	주관사	금액(백만)	건수	점유율(%)
1	KB증권	7,667,531	85	21.99
2	NH투자증권	7,663,017	77	21.98
3	한국투자증권	4,573,698	64	13.12
4	SK증권	2,736,167	16	7.85
5	신한금융투자	2,208,514	28	6.33
6	키움증권	1,912,100	24	5.48
7	미래에셋증권	1,436,000	13	4.12
8	삼성증권	1,424,333	13	4.08
9	한양증권	1,200,000	7	3.44
10	교보증권	1,121,000	9	3.21
11	이베스트투자증권	765,000	8	2.19
12	한화투자증권	413,500	3	1.19
13	하나금융투자	241,667	2	0.69
14	DB금융투자	221,000	5	0.63
15	다올투자증권	204,900	4	0.59
16	IBK투자증권	204,431	6	0.59
17	하이투자증권	159,681	6	0.46
18	대신증권	152,348	6	0.44
19	유진투자증권	120,600	5	0.35
20	우리종합금융	103,181	4	0.30
20	유안타증권	103,181	4	0.30
22	부국증권	70,000	2	0.20
23	케이프투자증권	60,000	1	0.17
24	메리츠증권	40,000	1	0.11
25	현대차증권	20,000	1	0.06
26	흥국증권	17,500	2	0.05
26	신영증권	17,500	1	0.05
28	코리아에셋투자증권	12,000	1	0.03
총합계		34,868,849	398	100.00

* 원화로 발행된 일반기업 회사채(SB), 여신전문금융회사채권(FB), 자산유동화증권(ABS)을 포함한 국내 발행 채권을 집계
* 사모발행 채권, 공사채, 은행채는 제외
*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교환사채(EB) 등 주식 관련 사채는 제외

2022년 1분기 원화채 인수 순위						
순위	인수사	금액(백만원)	점유율(%)	건수	평균 bp	조정실적(백만)
1	한국투자증권	4,462,295	11.56	120	12.91	4,021,989
2	KB증권	4,399,280	11.40	117	15.84	4,163,194
3	NH투자증권	3,443,300	8.92	108	15.97	3,321,602
4	SK증권	3,295,500	8.54	67	16.39	3,563,287
5	신한금융투자	1,895,967	4.91	49	16.81	2,035,055
6	다올투자증권	1,769,900	4.59	68	9.17	1,546,378
7	한양증권	1,743,500	4.52	66	12.49	1,881,665
8	교보증권	1,742,000	4.51	48	12.15	1,423,317
9	키움증권	1,607,500	4.16	57	14.28	1,562,858
10	이베스트투자증권	1,383,000	3.58	34	10.26	1,438,756
11	부국증권	1,096,000	2.84	50	12.39	1,347,753
12	현대차증권	1,030,000	2.67	29	16.82	1,133,341
13	한화투자증권	1,017,500	2.64	42	16.88	1,081,469
14	미래에셋증권	1,011,500	2.62	39	14.19	973,807
15	삼성증권	962,000	2.49	28	20.40	1,112,151
16	하이투자증권	860,800	2.23	37	15.03	967,049
17	하나금융투자	755,000	1.96	23	15.41	690,449
18	BNK투자증권	630,000	1.63	20	8.60	434,314
19	메리츠증권	599,000	1.55	21	15.99	579,815
20	유진투자증권	582,500	1.51	34	13.02	620,669
21	흥국증권	539,000	1.40	34	12.04	706,293
22	IBK투자증권	535,475	1.39	30	15.44	615,257
23	신영증권	522,000	1.35	36	12.81	474,579
24	DB금융투자	506,000	1.31	27	16.08	545,781
25	대신증권	476,082	1.23	30	14.52	421,504
26	유안타증권	385,007	1.00	25	12.95	429,505
27	한국산업은행	334,000	0.87	10	9.49	365,762
28	케이알투자증권	230,000	0.60	13	11.96	288,050
29	케이아이디비채권중개	220,000	0.57	15	8.98	209,167
30	케이프투자증권	200,000	0.52	17	13.98	281,475
31	우리종합금융	133,742	0.35	5	4.12	37,608
32	DS투자증권	111,000	0.29	7	13.99	168,963
33	코리아에셋투자증권	70,000	0.18	7	15.68	108,098
34	카카오페이증권	50,000	0.13	3	14.00	47,890
총합계		38,598,849	100.00	1,316	14.24	38,598,849

* 원화로 발행된 일반기업 회사채(SB), 여신전문금융회사채권(FB), 자산유동화증권(ABS)을 포함한 국내 발행 채권을 집계
* 사모발행 채권, 공사채, 은행채는 제외
*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교환사채(EB) 등 주식 관련 사채는 제외

2022년 1분기 원화채(ABS 제외) 대표주관 순위				
순위	주관사	금액(백만)	건수	점유율(%)
1	NH투자증권	7,663,017	77	23.71
2	KB증권	7,324,350	80	22.66
3	한국투자증권	4,470,517	60	13.83
4	SK증권	2,004,167	13	6.20
5	키움증권	1,885,600	23	5.83
6	신한금융투자	1,541,333	22	4.77
7	미래에셋증권	1,436,000	13	4.44
8	삼성증권	1,424,333	13	4.41
9	한양증권	1,200,000	7	3.71
10	교보증권	1,050,000	8	3.25
11	이베스트투자증권	765,000	8	2.37
12	한화투자증권	355,500	2	1.10
13	하나금융투자	241,667	2	0.75
14	DB금융투자	221,000	5	0.68
15	다올투자증권	204,900	4	0.63
16	유진투자증권	120,600	5	0.37
17	IBK투자증권	101,250	2	0.31
18	부국증권	70,000	2	0.22
19	케이프투자증권	60,000	1	0.19
20	대신증권	49,167	2	0.15
21	메리츠증권	40,000	1	0.12
22	하이투자증권	30,000	1	0.09
23	현대차증권	20,000	1	0.06
24	흥국증권	17,500	2	0.05
24	신영증권	17,500	1	0.05
26	코리아에셋투자증권	12,000	1	0.04
총합계		32,325,400	356	100.00

* 원화로 발행된 일반 기업의 공모 회사채(SB)와 여신전문금융회사채권(FB) 발행을 집계
* 자산유동화증권(ABS)은 제외

2022년 1분기 원화채(ABS 제외) 인수 순위						
순위	인수사	금액(백만원)	점유율(%)	건수	평균 bp	조정실적(백만)
1	한국투자증권	4,333,300	12.02	115	13.22	3,972,974
2	KB증권	4,032,400	11.18	111	16.93	3,965,820
3	NH투자증권	3,408,300	9.45	107	16.03	3,272,708
4	SK증권	2,775,500	7.70	64	17.59	2,836,865
5	다올투자증권	1,769,900	4.91	68	9.17	1,546,378
6	한양증권	1,743,500	4.84	66	12.49	1,881,665
7	교보증권	1,671,000	4.63	47	12.67	1,423,317
8	키움증권	1,545,000	4.29	55	13.82	1,337,947
9	신한금융투자	1,482,000	4.11	41	19.35	1,587,904
10	이베스트투자증권	1,383,000	3.84	34	10.26	1,438,756
11	부국증권	1,096,000	3.04	50	12.39	1,347,753
12	현대차증권	1,030,000	2.86	29	16.82	1,133,341
13	삼성증권	962,000	2.67	28	20.40	1,112,151
14	미래에셋증권	961,500	2.67	38	14.41	903,958
15	한화투자증권	959,500	2.66	41	16.86	941,772
16	하이투자증권	711,000	1.97	31	16.19	767,441
17	하나금융투자	710,000	1.97	22	15.75	627,585
18	BNK투자증권	630,000	1.75	20	8.60	434,314
19	메리츠증권	599,000	1.66	21	15.99	579,815
20	유진투자증권	582,500	1.62	34	13.02	620,669
21	흥국증권	539,000	1.49	34	12.04	706,293
22	신영증권	522,000	1.45	36	12.81	474,579
23	DB금융투자	506,000	1.40	27	16.08	545,781
24	IBK투자증권	382,000	1.06	25	20.07	531,317
25	대신증권	338,000	0.94	25	19.11	358,519
26	한국산업은행	239,000	0.66	9	9.29	233,050
27	유안타증권	233,000	0.65	20	18.83	345,565
28	케이알투자증권	230,000	0.64	13	11.96	288,050
29	케이아이디비채권중개	220,000	0.61	15	8.98	209,167
30	케이프투자증권	200,000	0.55	17	13.98	281,475
31	DS투자증권	111,000	0.31	7	13.99	168,963
32	코리아에셋투자증권	70,000	0.19	7	15.68	108,098
33	카카오페이증권	50,000	0.14	3	14.00	47,890
34	우리종합금융	30,000	0.08	1	15.00	23,517
총합계		36,055,400	100.00	1,261	14.74	36,055,400

* 원화로 발행된 일반 기업의 공모 회사채(SB)와 여신전문금융회사채권(FB) 발행을 집계
* 자산유동화증권(ABS)은 제외

2022년 1분기 외화표시채권 대표주관 순위				
순위	주관사	금액(백만)	건수	점유율(%)
-	-	-	-	-
총합계		-	-	-

* 국내에서 발행된 외화표시 일반기업 회사채(SB), 여신전문금융회사채권(FB), 자산유동화증권(ABS)을 집계
* 사모발행 채권, 공사채, 은행채는 제외. 후순위채는 ABS만 포함
*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교환사채(EB) 등 주식 관련 사채는 제외
* 원화 기준 발행금액은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원화환산금액으로 표시

2022년 1분기 외화표시채권 인수 순위						
순위	인수사	금액(백만원)	점유율(%)	건수	평균 bp	조정실적(백만)
-	-	-	-		-	-
총합계		-	-		-	-

* 국내에서 발행된 외화표시 일반기업 회사채(SB), 여신전문금융회사채권(FB), 자산유동화증권(ABS)을 집계
* 사모발행 채권, 공사채, 은행채는 제외
*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교환사채(EB) 등 주식 관련 사채는 제외
* 원화 기준 발행금액은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원화환산금액으로 표시

2022년 1분기 AA급 이상 대표주관 순위				
순위	주관사	금액(백만)	건수	점유율(%)
1	NH투자증권	6,573,500	58	23.74
2	KB증권	5,742,709	57	20.74
3	한국투자증권	3,490,209	38	12.61
4	SK증권	2,354,167	10	8.50
5	신한금융투자	1,713,709	18	6.19
6	키움증권	1,465,833	11	5.29
7	미래에셋증권	1,183,333	9	4.27
8	삼성증권	1,149,500	10	4.15
9	한양증권	1,020,000	5	3.68
10	교보증권	951,000	6	3.43
11	이베스트투자증권	550,000	5	1.99
12	한화투자증권	413,500	3	1.49
13	하나금융투자	241,667	2	0.87
14	하이투자증권	130,875	5	0.47
15	대신증권	113,375	5	0.41
16	우리종합금융	100,875	4	0.36
16	유안타증권	100,875	4	0.36
16	IBK투자증권	100,875	4	0.36
19	DB금융투자	71,000	1	0.26
20	다올투자증권	60,000	2	0.22
20	케이프투자증권	60,000	1	0.22
22	유진투자증권	50,000	1	0.18
22	부국증권	50,000	1	0.18
총합계		27,687,003	260	100.00

2022년 1분기 AA급 이상 인수 순위

순위	인수사	금액(백만원)	점유율(%)	건수	평균 bp	조정실적(백만)
1	한국투자증권	3,629,175	11.55	85	11.20	3,319,863
2	KB증권	3,163,275	10.07	83	13.33	2,949,674
3	SK증권	2,919,000	9.29	57	14.62	3,263,314
4	NH투자증권	2,731,300	8.69	85	14.12	2,771,198
5	다올투자증권	1,655,000	5.27	62	8.22	1,594,026
6	교보증권	1,602,000	5.10	41	11.16	1,340,178
7	신한금융투자	1,525,875	4.86	34	15.20	1,677,743
8	한양증권	1,391,000	4.43	43	11.23	1,511,255
9	이베스트투자증권	1,250,000	3.98	29	9.15	1,479,110
10	키움증권	1,177,000	3.75	35	10.89	996,471
11	현대차증권	950,000	3.02	24	16.21	1,113,169
12	한화투자증권	878,000	2.79	30	15.58	1,003,036
13	미래에셋증권	830,000	2.64	28	13.11	866,578
14	삼성증권	805,000	2.56	19	20.31	942,067
15	부국증권	740,000	2.36	37	9.08	754,584
16	하나금융투자	720,000	2.29	20	14.99	711,070
17	하이투자증권	610,875	1.94	26	11.80	588,029
18	BNK투자증권	610,000	1.94	18	8.35	486,456
19	메리츠증권	559,000	1.78	20	12.12	502,741
20	유진투자증권	430,000	1.37	21	8.29	444,237
21	신영증권	413,000	1.31	27	9.86	395,884
22	DB금융투자	403,000	1.28	21	13.42	354,928
23	흥국증권	400,000	1.27	22	9.91	559,882
24	IBK투자증권	348,875	1.11	18	12.06	302,661
25	대신증권	328,875	1.05	20	10.45	271,445
26	유안타증권	310,875	0.99	18	7.57	237,651
27	한국산업은행	285,000	0.91	7	7.09	300,604
28	케이알투자증권	190,000	0.60	10	8.24	204,155
29	케이아이디비채권중개	180,000	0.57	13	7.87	191,567
30	케이프투자증권	140,000	0.45	12	9.25	149,055
31	우리종합금융	130,875	0.42	5	4.21	41,385
32	카카오페이증권	40,000	0.13	2	12.50	28,344
32	코리아에셋투자증권	40,000	0.13	4	9.19	34,990
34	DS투자증권	30,000	0.10	3	7.00	29,653
총합계		31,417,003	100.00	979	12.30	31,417,003

2022년 1분기 A급 이상 대표주관 순위

순위	주관사	금액(백만)	건수	점유율(%)
1	NH투자증권	7,531,167	73	22.52
2	KB증권	7,211,209	75	21.57
3	한국투자증권	4,372,875	57	13.08
4	SK증권	2,736,167	16	8.18
5	신한금융투자	2,206,209	28	6.60
6	키움증권	1,709,833	18	5.11
7	미래에셋증권	1,436,000	13	4.29
8	한양증권	1,200,000	7	3.59
9	삼성증권	1,189,833	11	3.56
10	교보증권	1,121,000	9	3.35
11	이베스트투자증권	740,000	7	2.21
12	한화투자증권	413,500	3	1.24
13	하나금융투자	241,667	2	0.72
14	다올투자증권	204,900	4	0.61
15	DB금융투자	161,000	4	0.48
16	IBK투자증권	160,875	5	0.48
17	하이투자증권	157,375	6	0.47
18	대신증권	150,042	6	0.45
19	유안타증권	100,875	4	0.30
19	우리종합금융	100,875	4	0.30
21	유진투자증권	90,000	3	0.27
22	케이프투자증권	60,000	1	0.18
23	부국증권	50,000	1	0.15
24	메리츠증권	40,000	1	0.12
25	현대차증권	20,000	1	0.06
26	신영증권	17,500	1	0.05
27	코리아에셋투자증권	12,000	1	0.04
총합계		33,434,903	361	100.00

2022년 1분기 A급 이상 인수 순위

순위	인수사	금액(백만원)	점유율(%)	건수	평균 bp	조정실적(백만)
1	한국투자증권	4,291,175	11.55	111	12.63	3,864,376
2	KB증권	4,062,275	10.93	106	15.60	3,799,368
3	NH투자증권	3,360,300	9.04	104	15.92	3,270,938
4	SK증권	3,295,500	8.87	67	16.39	3,578,009
5	신한금융투자	1,886,875	5.08	48	16.83	2,033,503
6	다올투자증권	1,769,900	4.76	68	9.17	1,581,918
7	교보증권	1,717,000	4.62	47	12.04	1,415,030
8	한양증권	1,594,000	4.29	56	12.06	1,654,811
9	키움증권	1,461,000	3.93	51	13.95	1,423,675
10	이베스트투자증권	1,380,000	3.71	33	10.25	1,469,634
11	부국증권	1,090,000	2.93	49	12.40	1,372,018
12	현대차증권	1,030,000	2.77	29	16.82	1,146,487
13	미래에셋증권	1,001,000	2.69	37	14.04	967,984
14	한화투자증권	983,500	2.65	39	16.44	1,022,263
15	삼성증권	874,000	2.35	24	20.80	963,103
16	하이투자증권	852,375	2.29	35	15.08	965,323
17	하나금융투자	755,000	2.03	23	15.41	693,498
18	BNK투자증권	630,000	1.70	20	8.60	442,246
19	메리츠증권	599,000	1.61	21	15.99	584,851
20	유진투자증권	520,500	1.40	29	11.92	548,134
21	흥국증권	512,000	1.38	29	12.00	685,637
22	신영증권	496,000	1.33	33	12.47	439,835
23	DB금융투자	466,000	1.25	26	15.74	510,695
24	대신증권	463,875	1.25	29	14.57	415,026
25	IBK투자증권	448,875	1.21	25	14.21	499,317
26	유안타증권	368,875	0.99	24	12.71	419,317
27	한국산업은행	325,000	0.87	9	9.29	362,833
28	케이알투자증권	230,000	0.62	13	11.96	295,313
29	케이아이디비채권중개	220,000	0.59	15	8.98	214,498
30	케이프투자증권	190,000	0.51	16	13.92	271,575
31	우리종합금융	130,875	0.35	5	4.21	37,564
32	코리아에셋투자증권	70,000	0.19	7	15.68	110,670
33	카카오페이증권	50,000	0.13	3	14.00	48,522
34	DS투자증권	40,000	0.11	4	12.75	56,934
총합계		37,164,903	100.00	1,235	14.08	37,164,903

2022년 1분기 BBB급 이하 대표주관 순위

순위	주관사	금액(백만)	건수	점유율(%)
1	KB증권	456,322	14	31.82
2	삼성증권	234,500	2	16.35
3	키움증권	202,267	6	14.11
4	한국투자증권	200,822	11	14.00
5	NH투자증권	131,850	4	9.19
6	DB금융투자	60,000	1	4.18
7	IBK투자증권	43,556	5	3.04
8	유진투자증권	30,600	2	2.13
9	이베스트투자증권	25,000	1	1.74
10	부국증권	20,000	1	1.39
11	흥국증권	17,500	2	1.22
12	대신증권	2,306	4	0.16
12	유안타증권	2,306	4	0.16
12	우리종합금융	2,306	4	0.16
15	신한금융투자	2,306	4	0.16
15	하이투자증권	2,306	4	0.16
총합계		1,433,946	69	100.00

2022년 1분기 BBB급 이하 인수 순위						
순위	인수사	금액 (백만원)	점유율 (%)	건수	평균 bp	조정실적 (백만)
1	KB증권	337,005	23.50	15	18.71	324,774
2	한국투자증권	171,120	11.93	13	19.97	175,987
3	한양증권	149,500	10.43	10	17.07	151,835
4	키움증권	146,500	10.22	6	17.64	131,380
5	삼성증권	88,000	6.14	4	16.45	87,152
6	IBK투자증권	86,600	6.04	9	21.80	98,298
7	NH투자증권	83,000	5.79	4	17.80	73,389
8	DS투자증권	71,000	4.95	3	14.69	63,588
9	유진투자증권	62,000	4.32	5	22.29	70,925
10	DB금융투자	40,000	2.79	1	20.00	39,750
11	한화투자증권	34,000	2.37	3	29.78	52,565
12	흥국증권	27,000	1.88	5	12.96	21,338
13	신영증권	26,000	1.81	3	19.23	27,776
14	교보증권	25,000	1.74	1	20.00	24,844
15	유안타증권	16,132	1.13	5	18.60	14,906
16	대신증권	12,206	0.85	5	12.29	7,453
17	미래에셋증권	10,500	0.73	2	28.57	14,906
18	케이프투자증권	10,000	0.70	1	15.00	9,145
19	신한금융투자	9,091	0.63	5	13.20	5,963
20	한국산업은행	9,000	0.63	1	16.67	7,453
21	하이투자증권	8,425	0.59	6	10.33	5,304
22	부국증권	6,000	0.42	1	12.00	4,390
23	이베스트투자증권	3,000	0.21	1	13.00	2,378
24	우리종합금융	2,866	0.20	4	0.00	0
총합계		1,433,946	100.00	113	18.57	1,415,500

[참고] 2022년 1분기 주택금융공사 MBS 주관 및 인수 순위				
순위	House명	금액(백만원)	점유율	건수
1	신영증권	860,500	15.56	4
2	DB금융투자	656,600	11.87	3
3	부국증권	637,800	11.53	3
3	한양증권	637,800	11.53	3
5	IBK투자증권	451,400	8.16	2
6	KB증권	422,200	7.63	2
7	SK증권	420,900	7.61	2
8	교보증권	416,600	7.53	2
9	하이투자증권	387,900	7.01	2
10	한국투자증권	226,800	4.10	1
11	신한금융투자	212,200	3.84	1
12	메리츠증권	194,900	3.52	1
13	KHFC 자체인수	5,600	0.10	5
계		5,531,200	100.00	31

* ㈜ 후순위채권으로 주택금융공사가 자체 인수
* MBS의 경우 주관과 인수 실적에 차이가 없음

[참고] 2022년 1분기 주택저당채권(MBS) 발행 내역					
발행일	채권명	발행금액 (백만원)	만기일	발행금리 (%)	옵션
2022-01-21	KHFC MBS 2022-01 1-1	96,400	2023-01-21	1.826	
2022-01-21	KHFC MBS 2022-01 1-2	110,000	2024-01-21	2.180	
2022-01-21	KHFC MBS 2022-01 1-3	220,000	2025-01-21	2.365	
2022-01-21	KHFC MBS 2022-01 1-4	440,000	2027-01-21	2.670	CALL
2022-01-21	KHFC MBS 2022-01 1-5	270,000	2029-01-21	2.881	CALL
2022-01-21	KHFC MBS 2022-01 1-6	230,000	2032-01-21	2.974	CALL
2022-01-21	KHFC MBS 2022-01 1-7	140,000	2037-01-21	2.941	CALL
2022-01-21	KHFC MBS 2022-01 1-8	40,000	2042-01-21	2.871	CALL
2022-01-21	KHFC MBS 2022-01 1-9	20,000	2052-01-21	2.801	CALL
2022-01-21	KHFC MBS 2022-01 2-1	600	2053-01-21	14.001	CALL
2022-02-11	KHFC MBS 2022-02 1-1	86,800	2023-02-11	1.855	
2022-02-11	KHFC MBS 2022-02 1-2	110,000	2024-02-11	2.358	
2022-02-11	KHFC MBS 2022-02 1-3	200,000	2025-02-11	2.572	
2022-02-11	KHFC MBS 2022-02 1-4	440,000	2027-02-11	2.960	CALL
2022-02-11	KHFC MBS 2022-02 1-5	270,000	2029-02-11	3.229	CALL
2022-02-11	KHFC MBS 2022-02 1-6	230,000	2032-02-11	3.290	CALL
2022-02-11	KHFC MBS 2022-02 1-7	150,000	2037-02-11	3.304	CALL
2022-02-11	KHFC MBS 2022-02 1-8	40,000	2042-02-11	3.282	CALL
2022-02-11	KHFC MBS 2022-02 1-9	20,000	2052-02-11	3.220	CALL
2022-02-11	KHFC MBS 2022-02 2-1	600	2052-02-11	14.420	CALL
2022-02-22	KHFC MBS 2022-03 1-1	38,700	2023-02-22	1.885	
2022-02-22	KHFC MBS 2022-03 1-2	50,000	2024-02-22	2.372	
2022-02-22	KHFC MBS 2022-03 1-3	100,000	2025-02-22	2.580	
2022-02-22	KHFC MBS 2022-03 1-4	240,000	2027-02-22	2.917	CALL
2022-02-22	KHFC MBS 2022-03 1-5	140,000	2029-02-22	3.242	CALL
2022-02-22	KHFC MBS 2022-03 1-6	120,000	2032-02-22	3.293	CALL
2022-02-22	KHFC MBS 2022-03 1-7	80,000	2037-02-22	3.337	CALL
2022-02-22	KHFC MBS 2022-03 1-8	20,000	2042-02-22	3.312	CALL
2022-02-22	KHFC MBS 2022-03 1-9	10,000	2052-02-22	3.242	CALL
2022-02-22	KHFC MBS 2022-03 2-1	300	2053-02-22	14.442	CALL
2022-03-15	KHFC MBS 2022-04 1-1	52,900	2024-03-15	2.459	CALL
2022-03-15	KHFC MBS 2022-04 1-2	250,000	2027-03-15	2.990	CALL
2022-03-15	KHFC MBS 2022-04 1-3	190,000	2032-03-15	3.331	CALL
2022-03-15	KHFC MBS 2022-04 1-4	80,000	2042-03-15	3.336	CALL
2022-03-15	KHFC MBS 2022-04 2-1	2,100	2043-03-15	14.122	CALL
2022-03-29	KHFC MBS 2020-05 1-1	40,800	2023-03-29	2.028	
2022-03-29	KHFC MBS 2020-05 1-2	50,000	2024-03-29	2.436	
2022-03-29	KHFC MBS 2020-05 1-3	140,000	2025-03-29	2.814	
2022-03-29	KHFC MBS 2020-05 1-4	310,000	2027-03-29	3.177	CALL
2022-03-29	KHFC MBS 2020-05 1-5	190,000	2029-03-29	3.502	CALL
2022-03-29	KHFC MBS 2020-05 1-6	160,000	2032-03-29	3.598	CALL
2022-03-29	KHFC MBS 2020-05 1-7	100,000	2037-03-29	3.596	CALL
2022-03-29	KHFC MBS 2020-05 1-8	40,000	2042-03-29	3.580	CALL
2022-03-29	KHFC MBS 2020-05 1-9	10,000	2052-03-29	3.480	CALL
2022-03-29	KHFC MBS 2020-05 2-1	2,000	2053-03-29	14.680	CALL

※ 2019년 3월 이후 발행된 MBS는 사회적채권으로 발행되었습니다.

[참고] 2022년 1분기 주요 그룹별 회사채 발행 순위

순위	주관사	금액(백만)	건수	점유율(%)
1	현대자동차	4,045,000	29	11.22
2	신한금융	2,930,000	19	8.13
3	KB금융	2,380,000	11	6.60
4	롯데	2,362,000	12	6.55
5	NH농협금융	1,981,000	5	5.49
6	SK	1,669,000	9	4.63
7	우리금융	1,630,000	10	4.52
8	미래에셋	1,400,000	6	3.88
9	하나금융	1,380,000	9	3.83
10	한화	1,321,000	6	3.66
11	LG	1,145,000	3	3.18
12	한국전력공사	920,000	9	2.55
13	JB금융	842,000	7	2.34
14	산은금융	810,000	7	2.25
15	메리츠금융	796,000	7	2.21
16	DGB금융	630,000	5	1.75
16	CJ	630,000	2	1.75
18	KT	590,000	3	1.64
19	삼성	570,000	7	1.58
20	BNK금융	560,000	7	1.55
21	중소기업은행	530,000	4	1.47
22	한진	453,000	3	1.26
23	현대중공업	448,000	2	1.24
24	다우키움	446,000	9	1.24
25	한국투자금융	420,000	4	1.16
26	한국지역난방공사	400,000	2	1.11
27	에스티리더스프라이빗에쿼티	350,000	6	0.97
28	한국캐피탈	345,000	5	0.96
29	넷마블	310,000	1	0.86
30	RCI Banque	300,000	4	0.83
31	LS	290,000	3	0.80
32	S-OIL	280,000	1	0.78
33	한국리테일카드홀딩스	250,000	3	0.69
34	대상	200,000	1	0.55
34	KCC	200,000	1	0.55
34	포스코	200,000	1	0.55
37	한국증권금융	190,000	1	0.53
38	삼양	180,000	1	0.50
38	세아	180,000	2	0.50
40	오케이금융	171,900	8	0.48
41	한국콜마홀딩스	150,000	1	0.42
41	신세계	150,000	1	0.42
43	하이트진로	134,000	2	0.37
44	한솔	120,000	2	0.33
44	여천NCC	120,000	1	0.33
46	두산	110,000	1	0.31
47	한국토지신탁	100,000	1	0.28
47	한국석유공사	100,000	1	0.28
49	한신공영	85,000	1	0.24
50	한라	83,000	1	0.23
51	DB	53,500	2	0.15
52	애큐온캐피탈	45,000	2	0.12
53	태광	40,000	1	0.11
54	오릭스캐피탈코리아	30,000	1	0.08
총합계		36,055,400	253	100.00

[참고] 2022년 1분기 기업별 회사채 발행현황

순위	주관사	금액(백만)	건수	점유율(%)
1	우리금융캐피탈	1,250,000	8	3.47
2	현대커머셜	1,150,000	11	3.19
3	신한금융지주	1,070,000	3	2.97
4	현대캐피탈	1,060,000	8	2.94
5	KB캐피탈	1,000,000	4	2.77
6	NH농협금융지주	961,000	2	2.67
7	미래에셋증권	950,000	2	2.63
8	하나캐피탈	860,000	6	2.39
9	신한캐피탈	810,000	7	2.25
9	산은캐피탈	810,000	7	2.25
11	현대카드	790,000	5	2.19
12	KB국민카드	780,000	6	2.16
13	신한카드	750,000	7	2.08
14	JB우리캐피탈	700,000	6	1.94
15	KB금융	600,000	1	1.66
15	농협생명보험	600,000	1	1.66
17	현대제철	550,000	1	1.53
18	롯데캐피탈	530,000	4	1.47
18	IBK캐피탈	530,000	4	1.47
18	CJ제일제당	530,000	1	1.47
21	롯데케미칼	500,000	1	1.39
22	키움캐피탈	446,000	9	1.24
23	LG디스플레이	445,000	1	1.23
24	NH농협캐피탈	420,000	2	1.16
24	메리츠캐피탈	420,000	5	1.16
26	BNK캐피탈	410,000	6	1.14
26	롯데렌탈	410,000	1	1.14
28	KT	400,000	1	1.11
28	LG유플러스	400,000	1	1.11
28	한국지역난방공사	400,000	2	1.11
31	SK	390,000	1	1.08
32	DGB캐피탈	380,000	3	1.05
32	한화솔루션	380,000	1	1.05
34	엠캐피탈	350,000	6	0.97
35	한국캐피탈	345,000	5	0.96
36	코웨이	310,000	1	0.86
37	LX인터내셔널	300,000	1	0.83
37	롯데지주	300,000	1	0.83
37	신한금융투자	300,000	2	0.83
37	삼성증권	300,000	1	0.83
37	우리금융지주	300,000	1	0.83
37	RCI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300,000	4	0.83
37	대한항공	300,000	1	0.83
37	한국수력원자력	300,000	2	0.83
45	한화토탈	290,000	1	0.80
46	S-OIL	280,000	1	0.78
47	삼성카드	270,000	6	0.75
47	하나금융지주	270,000	1	0.75
49	롯데카드	250,000	3	0.69
49	한화손해보험	250,000	1	0.69
49	DGB금융지주	250,000	2	0.69
49	미래에셋캐피탈	250,000	3	0.69
49	하나카드	250,000	2	0.69
49	한국투자증권	250,000	1	0.69
55	현대케미칼	248,000	1	0.69
56	SK인천석유화학	227,000	1	0.63
57	호텔롯데	202,000	1	0.56
57	SK실트론	202,000	1	0.56
59	현대트랜시스	200,000	1	0.55
59	포스코에너지	200,000	1	0.55
59	메리츠증권	200,000	1	0.55
59	미래에셋자산운용	200,000	1	0.55
59	현대중공업지주	200,000	1	0.55
59	롯데제과	200,000	1	0.55
59	케이씨씨글라스	200,000	1	0.55
59	대상	200,000	1	0.55
59	한국서부발전	200,000	2	0.55
68	한국증권금융	190,000	1	0.53
68	BC카드	190,000	2	0.53
70	삼양사	180,000	1	0.50
70	한국중부발전	180,000	3	0.50
72	메리츠금융지주	176,000	1	0.49
73	오케이캐피탈	171,900	8	0.48
74	한국투자캐피탈	170,000	3	0.47
75	현대로템	165,000	1	0.46
76	SK어드밴스드	150,000	1	0.42
76	한국콜마	150,000	1	0.42
76	울산지피에스	150,000	1	0.42
76	SK브로드밴드	150,000	1	0.42
76	에스케이에코플랜트	150,000	1	0.42
76	SK매직	150,000	1	0.42
76	BNK금융지주	150,000	1	0.42

76	신세계	150,000	1	0.42
76	한화	150,000	1	0.42
76	롯데푸드	150,000	1	0.42
86	JB금융지주	142,000	1	0.39
87	한국남동발전	140,000	1	0.39
88	한화건설	130,000	1	0.36
89	한화에너지	121,000	1	0.34
90	엘에스일렉트릭	120,000	1	0.33
90	여천NCC	120,000	1	0.33
90	LS전선	120,000	1	0.33
93	두산	110,000	1	0.31
93	세아창원특수강	110,000	1	0.31
95	한국토지신탁	100,000	1	0.28
95	한솔제지	100,000	1	0.28
95	코리아에너지터미널	100,000	1	0.28
95	파주에너지서비스	100,000	1	0.28
95	한국남부발전	100,000	1	0.28
95	CJ프레시웨이	100,000	1	0.28
101	한진	90,000	1	0.25
102	한신공영	85,000	1	0.24
103	하이트진로	84,000	1	0.23
104	한라	83,000	1	0.23
105	우리카드	80,000	1	0.22
105	현대케피코	80,000	1	0.22
107	세아베스틸	70,000	1	0.19
107	롯데오토리스	70,000	2	0.19
109	한진칼	63,000	1	0.17
110	DB캐피탈	53,500	2	0.15
111	현대비엔지스틸	50,000	1	0.14
111	하이트진로홀딩스	50,000	1	0.14
111	에스코홀딩스	50,000	1	0.14
114	애큐온캐피탈	45,000	2	0.12
115	흥국생명보험	40,000	1	0.11
116	오릭스캐피탈코리아	30,000	1	0.08
117	한솔테크닉스	20,000	1	0.06
총합계		36,055,400	253	100.00

1st quarter of 2022
thebell League Table

Korean Paper

Deal list 집계기준

- 국내 거주자(국내 거주자의 해외법인 포함)가 해외 시장에서 발행한 모든 채권(공모/사모 포함, 구조화채권 포함)을 대상으로 한다.
- 발행액이나 표시통화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League Table 작성기준

- 국내 거주자(국내 거주자의 해외법인 포함)가 해외 시장에서 공모로 발행한 채권만을 대상으로 한다.
- 커버드본드를 포함하나, 자산유동화증권(ABS)은 주관실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 공동 주관의 경우 주관실적과 수수료를 참여 주관사에게 동등 배분한다.
- 주관실적은 Bookrunner 자격이 있는 곳에만 배분하며 joint manager 등 여타 자문사에게는 배분하지 않는다.
- 주관실적과 수수료실적은 미국 달러화(USD)로 표시하며, 非달러 표시 채권의 경우 납입일의 USD 대비 환율을 기준으로 환산한다.

Overview

2022년 1분기 한국물 시장 내 녹록지 않은 발행 환경이 이어졌지만 100억달러를 훌쩍 넘는 조달이 이뤄짐. 연초부터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에 더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변동성이 극에 달하며 글로벌 채권시장 내 투심이 급격히 위축됨. 한국물 시장 내 일부 발행사들은 당초 계획보다 발행을 늦추기도 함.

예년 수준만큼 스프레드를 축소하지는 못했으나 쉽지 않은 시장 상황에서도 국내 발행사들은 분전함. 달러금리 변동성이 심해지자 캥거루본드, 유로화 커버드본드 등 다른 조달 통로를 적극적으로 물색하며 발행을 이어감.

◇분기 기준 100억달러 돌파…뉴 이슈어도 '눈길'

더벨 리그테이블에 따르면 2022년 1분기 전체 한국물(공모) 발행 규모는 120억2123만달러로 집계됨. 전년 동기(137억8747만달러) 대비 12.81% 감소한 수치임. 2021년 1분기에 비해 발행량이 줄었으나 여전히 100억달러 규모를 거뜬히 넘어섰음. 한국물 분기 발행량은 2020년 3분기 처음으로 100억달러를 넘어섬.

연초부터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석유공사를 필두로 빅딜이 등장한 점 등이 주효했음. 1월 한국수출입은행은 30억달러라는 역대급 규모의 글로벌본드를 성공적으로 발행해내며 한국물 시장의 '큰손'임을 다시 한번 입증함. 한 달 뒤 KDB산업은행도 15억달러 규모의 글로벌본드를 발행하며 국책은행의 면모를 보여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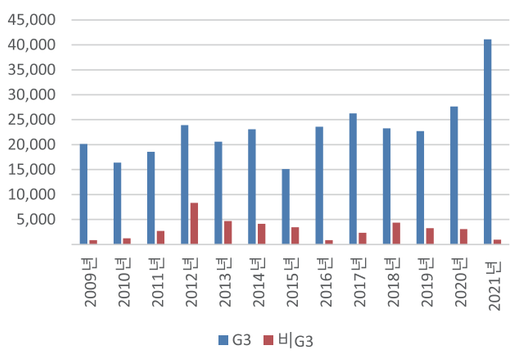
2022년 처음으로 한국물 시장에 등장한 발행사도 눈에 띔. 현대중공업은 KDB산업은행의 지급 보증을 받아 3억달러 규모의 유로본드 발행에 성공함. 국내 조선업계 처음으로 공모 한국물 시장에서 트랙 레코드를 쌓으며 조달 통로를 넓히는 데 성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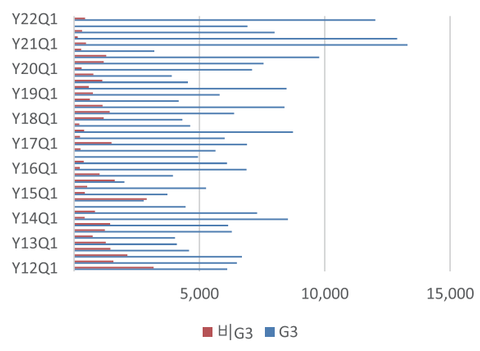
◇달러채 대세 '여전'…캥거루본드·사무라이본드 부활

2022년 1분기는 달러채 비중이 2021년 대비 소폭 늘어남. 2021년 달러채의 비중은 86.27%로 전년(2020년) 대비 12.47%포인트 높아졌으나 2022년에는 이보다 2.32%포인트 더 높아진 88.59%를 기록함. 달러금리 인상 기조에도 불구하고 한국물 시장에서는 여전히 달러채가 대세였음.

한국계 공모채권 해외 발행 추이

(단위: 백만 달러, 2022년 3월 31일 기준)





2022년 1분기 ESG 채권 딜리스트

납입일자	발행사	유형	만기	발행통화	발행금액 (발행통화기준)	발행금액 (달러기준)	주관사(북러너)
2022-01-18	한국수출입은행	그린본드	10년	USD	1,000,000,000	3,000,000,000	BNP파리바, 씨티증권, 다이와증권, HSBC, JP모간, MUFG, KB증권
2022-01-20	우리은행	지속가능채권	5년	USD	500,000,000	500,000,000	BNP파리바, 씨티증권, 크레디아그리콜, JP모간, MUFG, 소시에테제네랄
2022-01-24	현대캐피탈	그린본드	5년	USD	700,000,000	300,000,000	BNP파리바, 크레디아그리콜, JP모간, MUFG증권, SMBC닛코
2022-01-27	신한카드	소셜본드	5년	USD	400,000,000	400,000,000	BNP파리바, 씨티증권, 크레디아그리콜, MUFG, 스탠다드차타드
2022-02-04	한화생명	지속가능채권	10년(5년 콜옵션)	USD	750,000,000	750,000,000	JP모간, BoA메릴린치, 씨티증권, 스탠다드차타드
2022-02-14	기아	그린본드	3년/5년	USD	700,000,000	700,000,000	BoA메릴린치, 씨티증권, JP모간, 소시에테제네랄, 스탠다드차타드
2022-02-15	KB국민은행	지속가능채권	3년/5년	USD	700,000,000	700,000,000	BoA메릴린치, 크레디아그리콜, HSBC, KB증권, 미즈호증권, MUFG, 스탠다드차타드
2022-03-17	IBK기업은행	소셜본드	5년	AUD	410,000,000	291,480,000	ANZ, MUFG
2022-03-22	한국주택금융공사	소셜본드	3년	EUR	600,000,000	661,140,000	씨티증권, 크레디아그리콜, ING, 소시에테제네랄, 스탠다드차타드
2022-03-28	현대중공업	그린본드	5년	USD	300,000,000	300,000,000	BNP파리바, HSBC, KDB산업은행, 스탠다드차타드
2022-03-30	하나은행	지속가능채권	5년	USD	600,000,000	600,000,000	BoA메릴린치, JP모간, MUFG, 소시에테제네랄, 스탠다드차타드

이외 이종통화의 비중은 2021년 대비 다소 줄었음. 2022년 1분기 유로화채권의 비중은 전체의 5.5%로 2021년(11.21%) 대비 약 5.71%포인트 낮아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유로화 커버드본드 발행이 유일한 유로화 채권이었음.

2022년에는 캥거루본드가 오랜 공백을 깨고 다시 등장함. 캥거루본드는 2020년 10월 우리은행을 딜을 마지막으로 1년 반 넘게 한국물 시장에서 자취를 감춤. 올해 3월 들어 IBK기업은행과 현대캐피탈이 연이어 캥거루본드 발행에 나서 호주 시장에서 한국물의 존재감을 다시금 드러냄.

캥거루본드와 마찬가지로 2021년 한 건의 발행도 이뤄지지 않았던 사무라이본드 역시 다시 얼굴을 비춤. 대한항공이 300억엔 규모의 사무라이본드를 발행하며 엔화채는 전체 발행 가운데 2.19%의 점유율을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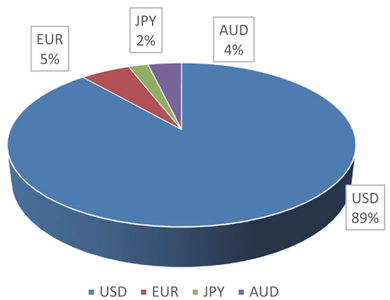
◇ESG 채권 열풍 여전…전체 70% 차지

2022년 1분기 한국물 시장에서 ESG 채권 열풍은 여전했다. 총 15건의 딜 중 11건이 ESG 채권으로 발행됐음. 2022년 1분기 ESG 채권은 총 82억262만달러 규모로 전체 발행 규모 중 68.23%를 차지했음. 2022년 한국물 시장의 첫 주자로 나선 한국수출입은행은 3·5·10년 3개의 트랜치 중 10년물을 그린본드로 구성해 10억달러의 ESG 채권을 발행함.

국내 발행사들은 달러채 이외에 호주달러, 유로화 채

2022년 1분기 해외채(공모) 발행 통화 비중

(달러화 환산 기준)



권도 ESG 채권으로 구성해 메리트를 더함. 한국주택금융공사는 3월 6억유로 규모의 유로화 커버드본드를 소셜본드로 구성함. 2022년 첫 캥거루본드 주자로 나선 IBK기업은행도 4억1000만호주달러를 소셜본드로 발행함.

2022년 처음 공모 한국물 시장에 발을 들인 현대중공업도 3억달러를 그린본드로 구성해 새 기록을 세움. 원화채 시장에서 조선업계 최초로 그린본드를 발행한 경험을 살려 외화채 시장에서도 무사히 첫 공모 달러채 발행을 마침.

2022년 1분기 국내기업 해외채(공모) 발행 주관 순위

(단위: 달러, %)

순위	주관사	주관금액	건수	점유율
1	JP모간	1,387,780,476	8	11.54
2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	1,301,632,762	7	10.83
3	BNP파리바	1,271,190,476	7	10.57
4	MUFG증권	1,101,288,262	7	9.16
5	HSBC	1,067,857,143	5	8.88
6	스탠다드차타드	834,728,000	7	6.94
7	BoA메릴린치	761,785,714	5	6.34
8	소시에테제네랄	689,847,048	5	5.74
9	크레디아그리콜	535,561,333	5	4.46
10	KB증권	528,571,429	2	4.40
11	다이와증권	516,286,880	2	4.29
12	미즈호증권	511,805,451	4	4.26
13	UBS	464,285,714	2	3.86
14	KDB산업은행	325,000,000	2	2.70
15	KDB아시아	214,285,714	1	1.78
16	ANZ	149,383,500	1	1.24
17	SMBC닛코	140,000,000	1	1.16
18	ING증권	132,228,000	1	1.10
19	노무라증권	87,715,451	1	0.73
총합계		12,021,233,353	73	100.00

* 국내 거주자(해외법인 포함)가 해외시장에서 공모로 발행한 채권이 대상.
* 커버드본드는 포함, 자산유동화증권(ABS)은 주관실적에 포함하지 않음.
* 공동 주관의 경우 주관실적과 수수료를 참여 주관사에게 동등 배분.
* 주관실적은 북러너(Bookrunner) 자격이 있는 곳에만 배분.
* 실적은 달러화(USD)로 표시. 非달러채권은 납입일의 USD대비 환율로 환산.

2022년 1분기 국내기업 G3 해외채(공모) 발행 주관 순위

(단위: 달러, %)

순위	주관사	주관금액	건수	점유율
1	JP모간	1,313,690,476	7	11.35
2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	1,301,632,762	7	11.25
3	BNP파리바	1,271,190,476	7	10.98
4	HSBC	1,067,857,143	5	9.23
5	MUFG증권	951,904,762	6	8.22
6	스탠다드차타드	834,728,000	7	7.21
7	BoA메릴린치	761,785,714	5	6.58
8	소시에테제네랄	689,847,048	5	5.96
9	크레디아그리콜	535,561,333	5	4.63
10	KB증권	528,571,429	2	4.57
11	다이와증권	516,286,880	2	4.46
12	UBS	464,285,714	2	4.01
13	미즈호증권	437,715,451	3	3.78
14	KDB산업은행	325,000,000	2	2.81
15	KDB아시아	214,285,714	1	1.85
16	SMBC닛코	140,000,000	1	1.21
17	ING증권	132,228,000	1	1.14
18	노무라증권	87,715,451	1	0.76
총합계		11,574,286,353	69	100

* 국내 거주자(해외법인 포함)가 해외시장에서 공모로 발행한 채권이 대상.
* 커버드본드는 포함, 자산유동화증권(ABS)은 주관실적에 포함하지 않음.
* 공동 주관의 경우 주관실적과 수수료를 참여 주관사에게 동등 배분.
* 주관실적은 북러너(Bookrunner) 자격이 있는 곳에만 배분.
* 실적은 달러화(USD)로 표시. 非달러채권은 납입일의 USD대비 환율로 환산.

2022년 1분기 국내기업 非G3 해외채(공모) 발행 주관 순위

(단위: 달러, %)

순위	주관사	주관금액	건수	점유율
1	ANZ	149,383,500	1	33.42
1	MUFG증권	149,383,500	1	33.42
3	JP모간	74,090,000	1	16.58
3	미즈호증권	74,090,000	1	16.58
총합계		446,947,000	4	100.00

* 국내 거주자(해외법인 포함)가 해외시장에서 공모로 발행한 채권이 대상.
* 커버드본드는 포함, 자산유동화증권(ABS)은 주관실적에 포함하지 않음.
* 공동 주관의 경우 주관실적과 수수료를 참여 주관사에게 동등 배분.
* 주관실적은 북러너(Bookrunner) 자격이 있는 곳에만 배분.
* 실적은 달러화(USD)로 표시. 非달러채권은 납입일의 USD대비 환율로 환산.

[참고] 2022년 1분기 한국물(공모) 딜리스트

발행일자 (납입일)	발행사	유형	발행 통화	발행금액 (발행통화기준)	발행금액 (달러기준)	주관사(북러너)
2022-01-18	한국수출입은행	글로벌본드	USD	3,000,000,000	3,000,000,000	BNP파리바, 씨티증권, 다이와증권, HSBC, JP모간, MUFG, KB증권
2022-01-18	한국석유공사	글로벌본드	USD	1,500,000,000	1,500,000,000	BNP파리바, 씨티증권, HSBC, 미즈호증권, 산업은행, UBS
2022-01-20	우리은행	글로벌본드	USD	500,000,000	500,000,000	BNP파리바, 씨티증권, 크레디아그리콜, JP모간, MUFG, 소시에테제네랄
2022-01-21	대한항공	사무라이본드	JPY	30,000,000,000	263,146,353	다이와증권, 미즈호증권, 노무라증권
2022-01-24	현대캐피탈	글로벌본드	USD	700,000,000	700,000,000	BNP파리바, 크레디아그리콜, JP모간, MUFG, SMBC닛코
2022-01-27	신한카드	유로본드	USD	400,000,000	400,000,000	BNP파리바, 씨티증권, 크레디아그리콜, MUFG증권, 스탠다드차타드
2022-02-04	한화생명	달러화 후순위채	USD	750,000,000	750,000,000	JP모간, BoA메릴린치,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 스탠다드차타드
2022-02-14	기아	글로벌본드	USD	700,000,000	700,000,000	BoA메릴린치, 씨티증권, JP모간, 소시에테제네랄, 스탠다드차타드
2022-02-15	KB국민은행	글로벌본드	USD	700,000,000	700,000,000	BoA메릴린치, 크레디아그리콜, HSBC, KB증권, 미즈호증권, MUFG, 스탠다드차타드
2022-02-24	산업은행	글로벌본드	USD	1,500,000,000	1,500,000,000	BoA메릴린치, BNP파리바, HSBC, JP모간, 산업은행, 소시에테제네랄, UBS
2022-03-17	IBK기업은행	캥거루본드	AUD	410,000,000	298,767,000	ANZ, MUFG
2022-03-21	현대캐피탈	캥거루본드	AUD	200,000,000	148,180,000	JP모간, 미즈호증권
2022-03-22	한국주택금융공사	유로화 커버드본드	EUR	600,000,000	661,140,000	씨티증권, 크레디아그리콜, ING증권, 소시에테제네랄, 스탠다드차타드
2022-03-28	현대중공업	유로본드	USD	300,000,000	300,000,000	BNP파리바, HSBC, KDB산업은행, 스탠다드차타드
2022-03-30	하나은행	글로벌본드	USD	600,000,000	600,000,000	BoA메릴린치, JP모간, MUFG, 소시에테제네랄, 스탠다드차타드

1st quarter of 2022
thebell League Table

Mergers & Acquisitions

Deal list 집계기준

- 2개 이상 거래주체(법인, 개인 등)의 경영 참여 및 사업 · 영업 · 자산 양수도 거래(자원개발 분야 포함)를 집계대상으로 삼는다.
  자산 양수도 거래의 경우 양수자가 자산 본래의 용법에 따라 계속사업으로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거래한 경우에 한한다.
  경영 참여와는 관련이 없는 주식거래(IPO 및 유상증자 포함) 혹은 채권거래(CB · BW포함) 등은 집계대상에서 제외한다.
- 경영참여의 조건은 경영권 지분 인수 및 이사회 참여 등이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경영 참여라고 인정될 시에는 기업 인수에 포함한다.
- 거래대상 또는 매각주체(합병주체) 또는 인수주체(피합병주체) 중 1곳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인 거래만을 집계한다. 거래 당사자 중 1인 이상이 외국인인 경우 크로스보더 거래로 분류한다.
- 거래 성격에 따라 '기업인수'(Corporate Acquisition), '기업합병 · 분할'(Corporate Merger & Consolidation, Split), 'SOC · 부동산'(SOC & Real Estate)으로 나눠 집계한다.
- 'SOC · 부동산'(SOC & Real Estate)은 경영 참여와는 별도로 거래되는 SOC, 부동산, 건물 · 토지 등의 거래를 의미한다.
  단 골프장, 호텔 등 거래 대상 부동산의 본래적 용법을 계속사업 목적으로 거래하는 경우 주식 거래 형태가 아니라도 M&A 거래로 인정한다.
- 자원개발권 또는 수익권 향유를 계속사업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등의 지분 거래는 원칙적으로 M&A 거래로 인정한다.
- '거래시기'에 따라 각각의 딜을 '공표거래'(Announced Deal)와 '완료거래'(Completed Deal)로 분류한다.
  - '공표거래'는 잔금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집계기간 중 '공표일자'가 확정된 거래를 의미한다.
  - '공표일자'란 거래대상자가 확정된 시기, 즉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일이나 본계약 체결일 등 가운데 가장 빠른 날이나 합병을 결정한 이사회 의결일을 의미한다.
  - '완료거래'는 공표일과 무관하게 집계기간 중 '완료일자'가 확정된 거래를 의미한다.
  - '완료일자'란 잔금지급이 완료된 날, 합병거래의 경우 합병기일을 의미한다.
- 거래금액은 원화로 집계하며 집계되는 거래규모는 50억원 이상으로 한다.
  - 거래통화가 외화인 경우에는 계약서상 명시된 환율 또는 계약체결일 현재 환율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한다.
  - 주식회사의 거래금액은 실제 거래된 주식 지분의 가치를 의미한다.
  - 사업 · 영업 · 자산 양수도 거래의 경우 양수자가 양수의 댓가로 지급한 금액의 총액을 의미한다.
  - 지분과 부채가 함께 거래된 경우 부채는 거래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거래 내용에 부채 상환을 예정한 경우에는 부채도 거래금액에 포함한다.
  - 기업합병 거래의 경우 피합병기업의 지분가치를 거래금액으로 본다.
  - 기업분할 거래의 경우 분할되어 신설되는 기업의 지분가치를 거래금액으로 본다.

League Table 작성기준

- 금융자문, 회계자문, 법률자문으로 구분하고 '공표거래'와 '완료거래'를 분리해 리그테이블을 집계한다.
- 금융자문은 자문사가 담당한 거래의 '금액'을 실적집계 1순위 기준으로 삼는다. 회계자문과 법률자문은 자문사가 담당한 거래의 '건수'와 '금액'을 동등한 비율로 실적집계에 반영한다.
- 계열사나 관계사간 M&A 거래는 리그테이블 실적에 포함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자문회사가 M&A 거래 당사자와 계열 또는 이에 준하는 관계인 경우 리그테이블 실적에 포함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회계법인이 거래 일방의 금융자문과 회계자문을 동시에 맡는 경우, 회계자문을 금융자문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 회계자문 실적을 포함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복수의 자문회사가 공동으로 자문을 맡았을 경우, 전체 거래금액(또는 거래건수)을 자문회사 수로 나눈 금액을 실적에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자문회사별 업무 관여도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증을 통해 실적금액 반영에 차등을 둘 수 있다.
- 자문계약을 맺었더라도 거래상대방을 확정해 MOU 이상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는 실적에 반영하지 않는다.
- 거래의 진실성과 자문역할에 대한 평가는 자문사를 고용한 의뢰기업(의뢰인) 의사를 우선 반영한다.
- 자문계약 관계가 실재하더라도 의뢰기업(의뢰인)이 자문역할을 부인할 경우에는 이를 반영해 실적에서 제외될 수 있다.
- '공표거래'가 집계기간내 파기될 경우 시기에 따라 분류하고 해당내역은 각주 등으로 별도 표기한다.
- 분기별 집계실적은 반기 및 연간실적을 집계하면서 거래성사여부, 거래일자, 거래금액을 재확인해 이를 최종 반영한다.

Overview

M&A 시장의 호황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음. 연초부터 조단위 거래가 쏟아져 나오며 전체 규모를 끌어올림. 이는 예고된 결과로. 지난해 4분기 발표 기준 인수 · 매각 거래만 40조원이 돌파한 영향.

PEF는 넘치는 드라이파우더로 M&A 시장에서 영향력을 넓힘. M&A 시장 내 60%가 넘는 거래를 이끌며 주도권을 잡았음. MBK파트너스의 일본 아코디아 넥스트 골프 거래가 최종 클로징되며 1분기 M&A 시장의 랜드마크 딜로 기록.

연초부터 조단위 딜이 쏟아짐. 1분기 조단위 딜은 7건. 아코디아 넥스트 골프 매각 거래에 이어 디티알오토모티브의 두산공작기계 인수(2조946억원), 중흥건설의 대우건설 인수(2조700억원)도 2조원을 웃도는 딜로 시장을 주도.

[총론] 연이은 조단위 빅딜, 호황기 끝이 아니다

1분기 완료기준 기업 인수 · 매각 거래규모는 총 31조7183억원, 건수로는 150건 기록. 지난해 1분기 거래규모는 17조2163억원, 거래건수는 131건. 지난해보다 두 배를 넘는 규모의 딜을 소화하며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음. 규모 대비 건수의 증가폭은 크지 않음. 대형 M&A거래가 시장을 주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

발표기준으로 1분기 17조2281억원, 128건의 거래가 일어남. 지난해 1분기 발표기준 규모인 14조6735억원, 145건에 비해 규모면에 2조원 넘게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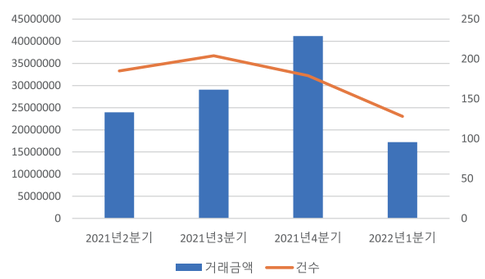
올해 1분기 거래규모는 M&A 시장의 최대 호황기였던 지난해 4분기와 맞먹는 수준. 지난해 4분기 기업 인수 · 매각 거래규모(완료기준)는 32조2502억원. 올해 초까지 호황기가 이어진 건 뜻밖의 결과는 아님. 지난해 4분기 발표 기준 거래규모(41조1798억원)는 40조원을 돌파. 지난해 발표된 조단위 빅딜이 올해 속속 클로징되면서 전체 거래 규모는 한층 커졌음.

조인트벤처(JV), 합병, 부동산 등을 모두 포함한 1분기 시장 규모는 완료기준 71조2854억원(184건). 지난해 같은 기간(39조2197억원)보다 30조원 이상 급증. 무엇보다 포스코그룹의 지주회사 설립으로 27조원이 넘는 거래가 이뤄지며 전체 시장 파이를 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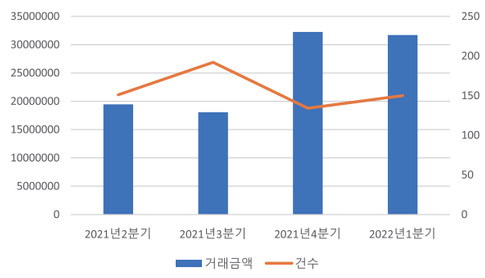
PEF는 올 1분기에도 활발한 투자활동을 이어감. 국내 M&A 시장에서 PEF가 관여한 거래 비중은 금액 기준으로 60%를 넘어섬. 상위 10위건 내에 있는 조단위 빅딜 6건을 주도하면서 영향력을 넓힌 결과.

기업 인수 · 매각 거래에서 금융자문 1위는 모간스탠리가 차지. 회계자문의 경우 삼일PwC가 8조6596억원의 실적으로 1위. 법률자문은 조정점유율 31.89%를 기록한 김앤장이 1위를 차지했으며, 이어 광장(14.25%), 태평양(11.87%) 순.

시기별 기업인수 시장규모 (Completed)



시기별 기업인수 시장규모 (Announced)



2022년 1분기 상위 10개 거래

(단위 : 백만원)

순위	거래대상	매각자	인수자	거래금액	성격
1	ACCORDIA GOLF Co.,Ltd. (지분 100%)	MBK Partners	포트리스 인베스트먼트그룹	4,262,240	크로스보더
2	한국브룩스오토메이션 (구주 100%)	브룩스오토메이션아시아	Thomas H. Lee Partners, L.P.	3,552,000	크로스보더
3	두산공작기계(지분 100%)	MBK Partners	디티알오토모티브	2,094,619	
4	대우건설(구주 50.75%)	케이디비인베스트먼트	중흥건설	2,070,000	
5	한샘(지분 30.21%)	최[대]주주/특수관계인	IMM프라이빗에쿼티	1,500,000	
6	아이엠지테크놀로지 (신주 13.8%, 룩셈부르크 법인 신주 25%)	아이엠지테크놀로지 외	스틱인베스트먼트	1,000,000	
7	투썸플레이스(구주 100%)	앵커에쿼티파트너스	The Carlyle Group	1,000,000	크로스보더
8	RES Mediterranee SAS (지분 100%)	RES Mediterranee SAS	한화솔루션	978,731	크로스보더
9	Endeavor Content(구주 80%)	Endeavor Content	CJ E&M	935,086	크로스보더
10	동진섬유 (구주 100%, 경진섬유 구주 100%)	최[대]주주/특수관계인	MBK Partners	795,700	

(완료 기준)

[금융자문] '메가딜 위력' 모간스탠리, 1위 수성

M&A 금융자문 부문은 모간스탠리가 1위 차지. MBK파트너스에 4조원 규모의 아코디아골프그룹 매각 자문을 제공한 위력. 한화솔루션의 프랑스 RES Mediterranee SAS(RES 프랑스) 인수와 IMM프라이빗에쿼티의 한샘 인수에 자문을 제공해 2위에 오른 딜로이트안진의 추격도 주목. 삼일PwC는 1분기에만 무려 26곳에 자문을 제공하며 선전.

모간스탠리는 완료기준 4조7715억원, 점유율 16.72%의 M&A 금융자문 실적을 기록. 1분기 상위 10곳의 자문 실적 금액은 총 24조원가량. 모간스탠리는 단 3건의 자문 실적만으로 전체 자문 실적 금액의 약 20%를 차지하며 M&A 금융자문 분야 1위 차지. 지난해에 이어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형국.

모간스탠리는 MBK파트너스의 아코디아골프그룹 매각에 자문사로 활약한 것이 주효. MBK파트너스의 아코디아골프그룹 매각 거래액은 4조2622억원.

딜로이트안진은 총 5건의 금융자문을 제공해 2위를 기록. 1분기 완료기준 자문 실적 금액은 3조7472억원, 점유율은 13.13%. 딜로이트안진은 약 1조5000억원 규모의 IMM프라이빗에쿼티의 한샘 인수전에서 단독 자문사로 활약. 한화솔루션의 프랑스 RES 프랑스 인수를 도와 약 1조원의 자문 실적을 올림. 이밖에 약 7000억원 규모의 알페시아리조트 매각 거래에도 금융 자문을 제공.

삼정KPMG는 완료기준 3조5646억원, 점유율 12.49%의 금융자문 실적을 기록해 3위를 차지. 1분기 랜드마크 딜로 자동차용 방진부품 · 축전지 생산업체 디티알오토모티브의 두산공작기계 인수에 자문을 제공. 거래 규모가 무려 2조946억원에 이르는 메가딜.

[합병·분할(JV포함)] 대기업 사업재편 주도 속 '김앤장' 조력 빛났다

국내 합병 · 분할 · 조인트벤처(JV) 자문시장의 키워

드는 '기업 지배구조 재편'으로 요약. 주요 대기업들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거나 자회사를 합병 · 분할하는 방식으로 지배구조를 손보며 분주한 모습.

기업 합병 · 분할 · JV 거래규모는 완료기준으로 32조5687억원, 거래건수는 11건 기록.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하면 거래건수는 1건이 줄었지만 거래금액은 83.7% 증가.

포스코그룹의 지주회사 설립이 순위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음. 포스코그룹은 지난해 12월 지주회사 전환을 공식 발표한 뒤 이를 위한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옴. 물적분할을 통해 지주회사 포스코홀딩스 아래에 포스코, 포스코케미칼 등의 자회사를 두는 지배구조 개편이 올 초 최종 마무리.

재계순위 6위인 포스코그룹의 지주회사 설립 자문거래 규모는 27조8167억원. 거래금액 기준으로 올해 1분기 합병 · 분할 · JV 자문거래의 대부분을 차지. 김앤장은 포스코그룹의 지주회사 설립에 법률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압도적인 1위로 올라설 수 있었음.

김앤장은 2022년 1분기 총 6건, 거래금액 29조7329억원 규모의 자문을 완료하며 합병 · 분할 · JV 분야 법률자문 1위를 차지. 조정점유율은 72.92%를 기록. 광장은 조정점유율 17.55%(건수 3건, 거래금액 2조5474억원)로 그 뒤를 이었음. 광장이 수임한 가장 큰 거래는 2조5158억원 규모의 LG에너지솔루션과 미국 제너럴모터스간 JV 설립건.

합병 · 분할 · JV 부문에서는 광장이 발표기준으로 1위를 차지. 4건, 3조9787억원 규모의 거래를 통해 조정점유율 66.67%를 기록.

[법률자문] 조단위 딜 꿰찬 김앤장, 올해도 매섭다

김 · 장 법률사무소(이하 김앤장)가 1분기 인수합병(M&A) 법률자문에서 선두를 수성. 조단위 딜을 휩쓸며 2위권을 멀찌감치 따돌렸음. 법무법인 광장과 태평양, 세종이 그 뒤를 이은 가운데 올해 2위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이 예상.

김앤장은 완료기준 34건 · 조정점유율 31.9%로 법률자문 분야 선두에 안착. 전체 거래 3분의 1을 독식하며 1위 로펌의 위상을 뽐냈음.

김앤장은 조단위 빅딜을 대거 자문하며 2위권과 격차를 벌림. 미국 기업 브룩스오토메이션의 자회사 한국브룩스오토메이션 매각(3조5520억원)을 비롯해 두산공작기계 매각 · 인수(각 2조946억원), 한샘 인수(1조5000억원), 일진머티리얼즈의 해외 중간지주회사인 아이엠지테크놀로지 신주 발행 인수(1조원), 투썸플레이스 매각(1조원) 자문을 수행.

2위에 오른 광장은 완료기준 24건 · 조정점유율 14.25%를 기록. 광장은 중흥건설의 대우건설 인수(2조700억원)를 자문하며 실적 방어에 성공. PEF 실적은 다른 로펌에 비해 취약하지만 국내 기업과의 돈독한 네트워크를 통해 알짜 딜을 다수 자문.

태평양은 자문 건수는 적지만 조 단위 딜을 자문하며 3위 차지. 완료기준 15건 · 조정점유율 11.87%를 달성. 세종은 크로스보더 딜에 강점을 보이며 4위를 기록.

[회계자문] 삼일 독주 속 삼정·안진 '견제 태세'

삼일PwC가 쾌조의 스타트를 끊으며 올해도 인수합병(M&A) 회계자문의 왕좌 수성 기대. 빅딜을 잇달아 성료시키며 금액과 건수에서 경쟁사들을 따돌림. 딜로이트안진과 삼정KPMG도 선전하며 삼일PwC를 맹추격. 특히 삼정KPMG는 발표 기준으로 2위에 올라 삼일PwC와의 치열한 순위 경쟁을 예고.

1분기 M&A 리그테이블에 따르면 완료 기준 회계자문 상위 10개사의 자문 실적은 총 24조5764억원. 이 중 삼일PwC는 8조6596억원 규모의 거래를 완료해 금액 기준 1위 차지. 거래 건수도 34건으로 2위보다 2배 이상 많았음.

삼일PwC는 올해도 굵직한 딜을 성료시키며 회계자문 강자로서의 면모를 뽐냄. 삼일PwC가 발을 담근 거래 중 1분기에 딜클로징된 조단위 M&A는 3건. 가장 컸던 M&A는 대우건설 매각. 중흥건설은 2조700억원을 들여 대우건설을 인수. 삼일PwC는 중흥건설에 회계자문을 제공. 그다음은 1조5000억원 규모의 한샘 M&A로 삼일PwC는 인수자인 IMM프라이빗에쿼티(PE)를 조력. 거래금액 1조원의 투썸플레이스 매각에서는 칼라일그룹에 인수자문을 수행.

삼일PwC의 뒤를 이어 딜로이트안진과 삼정KPMG가 각각 2위, 3위를 기록. 딜로이트안진의 거래금액이 6조8225억원으로 삼정KPMG(4조7487억원)보다 2조원 가량 많았음. 삼정KPMG는 디티알오토모티브의 두산공작기계 인수 자문(2조946억원), MBK파트너스의 동진섬유 · 경진섬유 인수 자문(7957억원), 네이버의 비엔엑스 인수 자문(4119억원), S&I엣스퍼트 인수 자문(3643억원) 등에서 활약하며 상위권에 자리매김.

언스트앤영(EY)한영은 3조1195억원의 거래를 자문해 4위에 자리함. 다만 1조6062억원 규모의 거래 성사를 눈앞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순위 상승 기대. EY한영은 대우건설 M&A에서 매각 측인 KDB인베스트먼트에 자문을 제공.

[부동산·SOC] 김앤장, 실물시장 '초전 우위' 점했다

실물시장에서는 정점의 자리를 놓쳤던 김 · 장 법률사무소(이하 김앤장)가 선두에 위치. 다만 전통의 강호들과 금액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향후 격전이 예상.

거래완료(잔금납입) 기준 부동산 · SOC 시장 법률자문 1위는 김앤장. 총 1조5905억원 규모의 거래를 성료. 완료 건수도 7건으로 가장 많았음. 김앤장은 국내 M&A 법률자문 시장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1위. 하지만 실물시장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평가받아왔음. 실제 더벨이 집계하는 부동산 · SOC 시장 법률자문 리그테이블에서 상위권에 속하기는 하지만 M&A 자문처럼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음.

김앤장이 올 1분기 1위에 오르면서 전통적인 구도가 깨질지 주목. 김앤장이 조력한 거래 중 가장 규모가 컸던 딜은 CDL호텔코리아가 매각한 '서울 밀레니엄힐튼호텔' 거래. 김앤장은 매수자인 이지스자산운용에 법률자문을 제공하면서 1조1000억원의 실적을 단숨에 쌓았음.

다만 향후 치열한 각축전이 전망. 세종은 총 5건의 거래에 자문했고 금액은 1조4910억원. 율촌은 1조4476억원. 2곳 모두 선두 탈환을 노릴 수 있는 실적. 세종이 자문한 빅딜로는 CDL호텔코리아의 서울 밀레니엄힐튼호텔 거래가 있음. 세종은 매각측을 조력해 1조1000억원의 자문 실적을 쌓음.

태평양은 거래 건수가 1건에 불과했지만 빅딜인 덕분에 금액 기준 4위에 랭크. 작년 4분기 발표된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이마트 성수동 본사 인수(1조2200억원)가 올 1월 마무리. 다만 거래 건수를 반영한 조정 점유율로는 지평이 태평양을 제치고 4위.

2022년 1분기 M&A 상위 10 거래

완료거래기준 (단위 : 백만원)

순위	거래대상	인수자	금액	성격
1	ACCORDIA GOLF Co.,Ltd.(지분 100%)	포트리스 인베스트먼트그룹	4,262,240	크로스보더
2	한국브룩스오토메이션 (구주 100%)	Thomas H. Lee Partners, L.P.	3,552,000	크로스보더
3	두산공작기계(지분 100%)	디티알오토모티브	2,094,619	
4	대우건설(구주 50.75%)	중흥건설	2,070,000	
5	한샘(지분 30.21%)	IMM 프라이빗에쿼티	1,500,000	
6	아이엠지테크놀로지 (신주 13.8%,룩셈부르크 법인 신주 25%)	스틱인베스트먼트	1,000,000	
7	투썸플레이스 (구주 100%)	The Carlyle Group	1,000,000	크로스보더
8	RES Mediterranee SAS (지분 100%)	한화솔루션	978,731	크로스보더
9	Endeavor Content (구주 80%)	CJ E&M	935,086	크로스보더
10	동진섬유(구주 100%, 경진섬유 구주 100%)	MBK Partners	795,700	

발표거래기준 (단위 : 백만원)

순위	거래대상	인수자	금액	성격
1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 50%)	삼성바이오로직스	2,780,700	
2	TES-Envirocorp Pte. Ltd. (지분 100%)	에스케이 에코플랜트	1,242,903	크로스보더
3	알펜시아 (사업권 · 부동산)	KH강원개발	711,540	
4	에이치씨씨홀딩스 (구주 49%)	헤임달 라이빗에쿼티	676,200	
5	클래시스(지분 61%)	Bain Capital	669,920	크로스보더
6	현대글로비스(구주 10%)	The Carlyle Group	611,250	크로스보더
7	한국유리공업(지분 100%)	LX인터내셔널	592,500	
8	코리아센터 (구주, 신주, CB, BW)	한국이커머스 홀딩스	580,320	
9	티맥스소프트 (지분 60.9%)	스카이레이크 에쿼티파트너스	560,289	
10	코어엔텍(지분 100%)	이앤에프 프라이빗에쿼티	485,000	

2022년 1분기 기업인수 · 매각 자문

금융
Completed

순위	자문사	금액(백만)	금액점유율(%)	건수
1	모간스탠리	4,771,521	16.72	3
2	딜로이트 안진	3,747,156	13.13	5
3	삼정KPMG	3,564,551	12.49	8
4	삼일PwC	3,556,617	12.46	26
5	BOA메릴린치	3,129,619	10.97	2
6	JP모간	1,235,086	4.33	2
7	KB증권	1,185,000	4.15	2
8	도이치뱅크	1,135,181	3.98	2
9	한국산업은행	1,043,250	3.66	2
10	미래에셋증권	1,035,000	3.63	1
11	씨티글로벌마켓증권	1,000,000	3.50	1
11	한국스탠다드차타드증권	1,000,000	3.50	1
13	신한금융투자	443,400	1.55	2
14	UBS	357,631	1.25	1
15	Alter Ego	300,000	1.05	1
16	골드만삭스	265,000	0.93	1
17	다이와증권	204,528	0.72	1
18	맥쿼리증권	165,600	0.58	1
19	KR&Partners	150,000	0.53	1
20	HSBC	93,571	0.33	1
21	예일 회계법인	90,800	0.32	1
22	한울 회계법인	46,115	0.16	1
23	블랙마운틴	7,350	0.03	1
23	워터브릿지파트너스	7,350	0.03	1
계		28,534,325	100.00	68

* 공동 자문의 경우, 전체 거래금액을 자문회사 수로 나눠 반영

금융
Announced

순위	자문사	금액(백만)	금액점유율(%)	건수
1	삼일PwC	3,043,976	29.58	16
2	삼정KPMG	1,578,944	15.34	7
3	BDA파트너스	1,242,903	12.08	1
4	신한금융투자	879,300	8.54	3
5	딜로이트 안진	711,540	6.91	1
6	UBS	676,200	6.57	1
7	언스트앤영 한영	621,696	6.04	2
8	KB증권	485,000	4.71	1
9	크레디트스위스	306,400	2.98	2
10	JP모간	300,000	2.92	1
10	Alter Ego	300,000	2.92	1
12	씨티글로벌마켓증권	90,000	0.87	1
13	한울 회계법인	46,115	0.45	1
14	한국산업은행	8,250	0.08	1
15	삼성증권	0	0.00	1
계		10,290,324	100.00	40

* 공동 자문의 경우, 전체 거래금액을 자문회사 수로 나눠 반영

회계
Completed

순위	자문사	금액(백만)	금액점유율(%)	건수	건수점유율(%)	조정점유율(%)
1	삼일PwC	8,659,602	37.18	34	44.16	40.67
2	딜로이트 안진	6,822,521	29.30	14	18.18	23.74
3	삼정KPMG	4,748,656	20.39	13	16.88	18.64
4	언스트앤영 한영	2,443,250	10.49	4	5.19	7.84
5	삼화 회계법인	39,698	0.17	2	2.60	1.38
6	Alter Ego	300,000	1.29	1	1.30	1.29
7	예일 회계법인	90,800	0.39	1	1.30	0.84
8	한울 회계법인	46,115	0.20	1	1.30	0.75
9	선일회계법인	45,400	0.19	1	1.30	0.75
10	우리 회계법인	27,999	0.12	1	1.30	0.71
11	삼도회계법인	18,253	0.08	1	1.30	0.69
12	김 · 장 법률사무소	18,000	0.08	1	1.30	0.69
13	태성회계법인	14,700	0.06	1	1.30	0.68
14	삼덕 회계법인	7,900	0.03	1	1.30	0.67
15	대현 회계법인	5,500	0.02	1	1.30	0.66
계		23,288,394	100.00	77	100.00	100.00

* 건수-금액 가중평균으로 실적집계
* 금융 & 회계 동시 자문 경우 회계실적은 금융실적으로 대체

회계
Announced

순위	자문사	금액(백만)	금액점유율(%)	건수	건수점유율(%)	조정점유율(%)
1	삼일PwC	3,412,079	33.21	18	33.96	33.59
2	삼정KPMG	3,007,260	29.27	14	26.42	27.84
3	딜로이트 안진	1,791,020	17.43	8	15.09	16.26
4	언스트앤영 한영	1,606,146	15.63	5	9.43	12.53
5	Alter Ego	300,000	2.92	1	1.89	2.40
6	삼화 회계법인	39,698	0.39	2	3.77	2.08
7	한울 회계법인	46,115	0.45	1	1.89	1.17
8	우리 회계법인	27,999	0.27	1	1.89	1.08
9	삼도회계법인	18,253	0.18	1	1.89	1.03
10	김 · 장 법률사무소	18,000	0.18	1	1.89	1.03
11	삼덕 회계법인	7,900	0.08	1	1.89	0.98
계		10,274,471	100.00	53	100.00	100.00

* 건수-금액 가중평균으로 실적집계
* 금융 & 회계 동시 자문 경우 회계실적은 금융실적으로 대체

법률
Completed

순위	자문사	금액(백만)	금액점유율(%)	건수	건수점유율(%)	조정점유율(%)
1	김 · 장 법률사무소	16,762,572	43.41	34	20.36	31.89
2	법무법인 광장	5,458,344	14.14	24	14.37	14.25
3	법무법인 태평양	5,698,939	14.76	15	8.98	11.87
4	법무법인 세종	2,800,327	7.25	20	11.98	9.61
5	법무법인 율촌	1,611,488	4.17	16	9.58	6.88
6	법무법인 엘에이비파트너스	1,654,300	4.28	9	5.39	4.84
7	법무법인 화우	1,956,691	5.07	6	3.59	4.33
8	KL파트너스	563,603	1.46	11	6.59	4.02
9	법무법인 세움	143,799	0.37	9	5.39	2.88
10	법무법인 별	52,000	0.13	6	3.59	1.86
11	오멜버니 앤 마이어스	467,543	1.21	1	0.60	0.90
12	법무법인 KCL	168,001	0.44	2	1.20	0.82
13	Herbert Smith	357,631	0.93	1	0.60	0.76
14	법무법인 지평	83,316	0.22	2	1.20	0.71
15	Sullivan& Cromewell	300,000	0.78	1	0.60	0.69
16	법무법인 바른	127,490	0.33	1	0.60	0.46
17	Ropes & Gray	100,000	0.26	1	0.60	0.43
17	DENTONS	100,000	0.26	1	0.60	0.43
19	법무법인 비트	60,000	0.16	1	0.60	0.38
20	AKSET Law Firm	58,769	0.15	1	0.60	0.38
21	법무법인 다래	46,115	0.12	1	0.60	0.36
22	Joyce A Tan & Partners	17,642	0.05	1	0.60	0.32
23	법무법인 이후	9,500	0.02	1	0.60	0.31
24	법무법인 린	8,250	0.02	1	0.60	0.31
25	법무법인 새로	5,900	0.02	1	0.60	0.31
계		38,612,220	100.00	167	100.00	100.00

* 건수-금액 가중평균으로 실적집계
* 공동 자문의 경우, 전체 거래금액을 자문회사 수로 나눠 반영

법률
Announced

순위	자문사	금액(백만)	금액점유율(%)	건수	건수점유율(%)	조정점유율(%)
1	김 · 장 법률사무소	9,262,939	34.47	24	16.67	25.57
2	법무법인 광장	5,760,146	21.43	15	10.42	15.92
3	법무법인 세종	4,129,515	15.37	20	13.89	14.63
4	법무법인 율촌	3,043,958	11.33	19	13.19	12.26
5	법무법인 태평양	2,100,833	7.82	15	10.42	9.12
6	법무법인 비트	151,091	0.56	11	7.64	4.10
7	법무법인 세움	154,799	0.58	10	6.94	3.76
8	법무법인 엘에이비파트너스	561,100	2.09	6	4.17	3.13
9	법무법인 별	66,340	0.25	7	4.86	2.55
10	법무법인 화우	380,280	1.41	3	2.08	1.75
11	KL파트너스	106,603	0.40	4	2.78	1.59
12	Ropes & Gray	434,960	1.62	2	1.39	1.50
13	Sullivan& Cromewell	300,000	1.12	1	0.69	0.91
14	법무법인 기현	230,000	0.86	1	0.69	0.78
15	DENTONS	100,000	0.37	1	0.69	0.53
16	법무법인 다래	46,115	0.17	1	0.69	0.43
17	법무법인 지평	22,865	0.09	1	0.69	0.39
18	법무법인 이후	9,500	0.04	1	0.69	0.36
19	법무법인 린	8,250	0.03	1	0.69	0.36
20	법무법인 새로	5,900	0.02	1	0.69	0.36
계		26,875,194	100.00	144	100.00	100.00

* 건수-금액 가중평균으로 실적집계
* 공동 자문의 경우, 전체 거래금액을 자문회사 수로 나눠 반영

2022년도 1분기 합병 · 조인트벤처 자문

금융
Completed

순위	자문사	금액(백만)	금액점유율(%)	건수
1	모간스탠리	27,816,777	99.51	1
2	NH투자증권	137,747	0.49	1
계		27,954,524	100.00	2

금융
Announced

순위	자문사	금액(백만)	금액점유율(%)	건수
-	-	-	-	-
계		-	-	-

회계
Completed

순위	자문사	금액(백만)	금액점유율(%)	건수	건수점유율(%)	조정점유율(%)
1	삼일PwC	27,816,777	100.00	1	100.00	100.00
계		27,816,777	100.00	1	100.00	100.00

회계
Announced

순위	자문사	금액(백만)	금액점유율(%)	건수	건수점유율(%)	조정점유율(%)
-	-	-	-	-	-	-
계		-	-	-	-	-

법률
Completed

순위	자문사	금액(백만)	금액점유율(%)	건수	건수점유율(%)	조정점유율(%)
1	김 · 장 법률사무소	29,732,941	91.29	6	54.55	72.92
2	법무법인 광장	2,547,440	7.82	3	27.27	17.55
3	법무법인 율촌	213,240	0.65	1	9.09	4.87
4	법무법인 지평	75,100	0.23	1	9.09	4.66
계		32,568,722	100.00	11	100.00	100.00

* 건수-금액 가중평균으로 실적집계

법률
Announced

순위	자문사	금액(백만)	금액점유율(%)	건수	건수점유율(%)	조정점유율(%)
1	법무법인 광장	3,978,759	83.78	4	66.67	75.22
2	법무법인 세종	747,039	15.73	1	16.67	16.2
3	법무법인 지평	23,300	0.49	1	16.67	8.58
계		4,749,098	100	6	100	100

2022년 1분기 M&A SOC · 부동산 자문

금융
Completed

순위	자문사	금액(백만)	금액점유율(%)	건수
1	딜로이트 안진	1,930,472	73.95	3
2	삼일PwC	680,072	26.05	1
계		2,610,543	100.00	4

금융
Announced

순위	자문사	금액(백만)	금액점유율(%)	건수
-	-	-	-	-
계		-	-	-

회계
Completed

순위	자문사	금액(백만)	금액점유율(%)	건수	건수점유율(%)	조정점유율(%)
1	삼정KPMG	1,000,000	42.37	1	33.33	37.85
2	딜로이트 안진	680,072	28.81	1	33.33	31.07
2	삼일PwC	680,072	28.81	1	33.33	31.07
계		2,360,143	100.00	3	100.00	100.00

회계
Announced

순위	자문사	금액(백만)	금액점유율(%)	건수	건수점유율(%)	조정점유율(%)
-	-	-	-	-	-	-
계		-	-	-	-	-

법률
Completed

순위	자문사	금액(백만)	금액점유율(%)	건수	건수점유율(%)	조정점유율(%)
1	김 · 장 법률사무소	1,590,464	24.72	7	31.82	28.27
2	법무법인 세종	1,491,000	23.17	5	22.73	22.95
3	법무법인 율촌	1,447,596	22.50	3	13.64	18.07
4	법무법인 지평	538,200	8.36	4	18.18	13.27
5	법무법인 태평양	1,220,000	18.96	1	4.55	11.75
6	법무법인 광장	146,700	2.28	2	9.09	5.69
계		6,433,960	100.00	22	100.00	100.00

법률
Announced

순위	자문사	금액(백만)	금액점유율(%)	건수	건수점유율(%)	조정점유율(%)
1	김 · 장 법률사무소	264,834	31.38	3	37.50	34.44
2	법무법인 세종	158,000	18.72	1	12.50	15.61
3	법무법인 태평양	145,000	17.18	1	12.50	14.84
4	법무법인 율촌	130,000	15.40	1	12.50	13.95
5	법무법인 지평	76,200	9.03	1	12.50	10.76
6	법무법인 광장	70,000	8.29	1	12.50	10.40
계		844,034	100.00	8	100.00	100.00

Fees

2022년 1분기 ECM 수수료 순위				
순위	주관사	금액(백만원)	건수	점유율(%)
1	KB증권	37,092	7	25.77
2	모간스탠리	16,958	1	11.78
3	신한금융투자	11,097	4	7.71
4	대신증권	10,928	3	7.59
5	씨티글로벌마켓증권	9,818	1	6.82
5	골드만삭스	9,818	1	6.82
5	BOA메릴린치	9,818	1	6.82
8	미래에셋증권	6,401	7	4.45
9	한국투자증권	5,902	9	4.10
10	신영증권	4,671	4	3.24
11	NH투자증권	4,524	3	3.14
12	하나금융투자	2,887	4	2.01
13	DB금융투자	2,616	4	1.82
14	SK증권	2,470	2	1.72
15	삼성증권	2,009	4	1.40
16	유진투자증권	1,956	5	1.36
17	한양증권	1,701	1	1.18
18	하이투자증권	893	1	0.62
19	유안타증권	692	1	0.48
20	키움증권	673	2	0.47
21	IBK투자증권	530	2	0.37
22	상상인증권	400	1	0.28
23	현대차증권	101	1	0.07
총합계		143,952	69	100.00

* 주관사 혹은 모집주선사가 ECM 딜(IPO, 유상증자, ELB) 공모 발행을 진행하며 받은 수수료 합산.
  블록딜 제외
* 수수료는 발행실적보고서상 기재된 금액이 기준
*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경우 공모 후 실제 지급된 수수료만 반영

2022년 1분기 기업공개(IPO) 수수료 순위				
순위	주관사	금액(백만원)	건수	점유율(%)
1	KB증권	20,300	3	18.06
2	모간스탠리	16,958	1	15.09
3	대신증권	10,928	3	9.72
4	신한금융투자	10,868	3	9.67
5	씨티글로벌마켓증권	9,818	1	8.74
5	BOA메릴린치	9,818	1	8.74
5	골드만삭스	9,818	1	8.74
8	신영증권	4,298	3	3.82
9	한국투자증권	3,806	7	3.39
10	미래에셋증권	3,771	4	3.36
11	NH투자증권	3,032	2	2.70
12	하나금융투자	2,887	4	2.57
13	DB금융투자	1,846	2	1.64
14	삼성증권	1,423	3	1.27
15	하이투자증권	893	1	0.79
16	유안타증권	692	1	0.62
17	유진투자증권	350	1	0.31
18	키움증권	300	1	0.27
18	IBK투자증권	300	1	0.27
20	SK증권	180	1	0.16
21	현대차증권	101	1	0.09
총합계		112,384	45	100.00

* 주관사가 기업공개(IPO) 공모 발행을 진행하며 받은 수수료 합산
* 수수료는 발행실적보고서상 기재된 금액이 기준
*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경우 공모 후 실제 지급된 수수료만 반영

2022년 1분기 유상증자 수수료 순위				
순위	주관사	금액(백만원)	건수	점유율(%)
1	KB증권	16,792	4	55.18
2	미래에셋증권	2,630	3	8.64
3	SK증권	2,290	1	7.53
4	한국투자증권	2,096	2	6.89
5	한양증권	1,701	1	5.59
6	NH투자증권	1,492	1	4.90
7	유진투자증권	1,006	3	3.31
8	삼성증권	587	1	1.93
9	상상인증권	400	1	1.31
10	키움증권	373	1	1.23
10	신영증권	373	1	1.23
12	IBK투자증권	230	1	0.75
12	DB금융투자	230	1	0.75
12	신한금융투자	230	1	0.75
총합계		30,428	22	100.00

* 주관사 혹은 모집주선사가 유상증자 공모 발행을 진행하며 받은 수수료 합산
* 수수료는 발행실적보고서상 기재된 금액이 기준

2022년 1분기 ELB 수수료 순위				
순위	주관사	금액(백만원)	건수	점유율(%)
1	유진투자증권	600	1	52.63
2	DB금융투자	540	1	47.37
총합계		1,140	2	100.00

* 주관사 혹은 모집주선사가 주식연계증권(ELB) 공모 발행을 진행하며 받은 수수료 합산
* 수수료는 발행실적보고서상 기재된 금액이 기준

2022년 DCM 전체 수수료			
순위	주관사	금액(백만)	점유율(%)
1	KB증권	8,273	14.31
2	한국투자증권	6,188	10.70
3	NH투자증권	5,944	10.28
4	SK증권	5,417	9.37
5	신한금융투자	3,349	5.79
6	키움증권	2,517	4.35
7	한양증권	2,177	3.77
8	교보증권	2,125	3.67
9	삼성증권	2,062	3.57
10	현대차증권	1,733	3.00
11	한화투자증권	1,718	2.97
12	다올투자증권	1,623	2.81
13	미래에셋증권	1,531	2.65
14	이베스트투자증권	1,419	2.45
15	부국증권	1,358	2.35
16	하이투자증권	1,294	2.24
17	하나금융투자	1,164	2.01
18	메리츠증권	958	1.66
19	IBK투자증권	847	1.47
20	DB금융투자	844	1.46
21	유진투자증권	774	1.34
22	대신증권	691	1.20
23	신영증권	669	1.16
24	흥국증권	649	1.12
25	BNK투자증권	542	0.94
26	유안타증권	499	0.86
27	한국산업은행	317	0.55
28	케이프투자증권	280	0.48
29	케이알투자증권	275	0.48
30	케이아이디비채권중개	197	0.34
31	DS투자증권	155	0.27
32	코리아에셋투자증권	110	0.19
33	카카오페이증권	70	0.12
34	우리종합금융	55	0.10
총합계		57,823	100.00

* 주관사가 DCM딜(SB,FB,ABS)공모 발행을 진행하여 받은 수수료 합산.
* 수수료는 발행실적보고서상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함.

2022년 DCM 대표주관 수수료			
순위	주관사	금액(백만)	점유율(%)
1	KB증권	1,304	45.89
2	NH투자증권	447	15.72
3	한국투자증권	426	15.00
4	키움증권	221	7.78
5	신한금융투자	161	5.66
6	삼성증권	99	3.48
7	미래에셋증권	96	3.37
8	DB금융투자	30	1.06
9	IBK투자증권	21	0.73
10	유진투자증권	15	0.54
11	SK증권	15	0.53
12	교보증권	8	0.26
총합계		2,841	100.00

* 대표주관사가 받은 수수료 합산
* 수수료는 발행실적보고서상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함.

2022년 1분기 국내채권 인수 수수료				
순위	주관사	금액(백만원)	평균 bp	점유율(%)
1	KB증권	6,969	15.85	12.68
2	한국투자증권	5,762	12.92	10.48
3	NH투자증권	5,498	15.97	10.00
4	SK증권	5,402	16.39	9.82
5	신한금융투자	3,188	16.84	5.80
6	키움증권	2,296	14.28	4.18
7	한양증권	2,177	12.49	3.96
8	교보증권	2,117	12.67	3.85
9	삼성증권	1,963	20.40	3.57
10	현대차증권	1,733	16.82	3.15
11	한화투자증권	1,718	16.88	3.12
12	다올투자증권	1,623	9.17	2.95
13	미래에셋증권	1,436	14.19	2.61
14	이베스트투자증권	1,419	10.26	2.58
15	부국증권	1,358	12.39	2.47
16	하이투자증권	1,294	15.07	2.35
17	하나금융투자	1,164	15.41	2.12
18	메리츠증권	958	15.99	1.74
19	IBK투자증권	827	15.51	1.50
20	DB금융투자	814	16.08	1.48
21	유진투자증권	759	13.02	1.38
22	대신증권	691	14.58	1.26
23	신영증권	669	12.81	1.22
24	흥국증권	649	12.04	1.18
25	BNK투자증권	542	8.60	0.99
26	유안타증권	499	12.99	0.91
27	한국산업은행	317	9.49	0.58
28	케이프투자증권	280	13.98	0.51
29	케이알투자증권	275	11.96	0.50
30	케이아이디비채권중개	197	8.98	0.36
31	DS투자증권	155	13.99	0.28
32	코리아에셋투자증권	110	15.68	0.20
33	카카오페이증권	70	14.00	0.13
34	우리종합금융	55	4.21	0.10
총합계		54,981	14.28	100.00

* 채권 인수사가 인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합산
* 수수료는 발행실적보고서상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함

2022년 1분기 일반 회사채 인수 수수료				
순위	주관사	금액(백만원)	평균 bp	점유율(%)
1	KB증권	6,125	19.07	15.90
2	NH투자증권	4,724	19.37	12.26
3	SK증권	4,377	19.98	11.36
4	한국투자증권	3,993	18.94	10.36
5	신한금융투자	2,710	19.97	7.03
6	삼성증권	1,810	21.11	4.70
7	키움증권	1,742	18.56	4.52
8	교보증권	1,557	18.08	4.04
9	한화투자증권	1,448	19.84	3.76
10	현대차증권	1,330	17.73	3.45
11	미래에셋증권	1,068	20.09	2.77
12	하나금융투자	1,043	17.97	2.71
13	한양증권	862	14.53	2.24
14	하이투자증권	858	21.71	2.23
15	메리츠증권	818	21.57	2.12
16	대신증권	609	20.44	1.58
17	DB금융투자	600	15.97	1.56
18	IBK투자증권	535	20.43	1.39
19	신영증권	448	22.60	1.16
20	다올투자증권	388	15.82	1.01
21	유진투자증권	362	23.75	0.94
22	BNK투자증권	275	17.19	0.71
23	유안타증권	233	20.61	0.60
24	부국증권	230	15.33	0.60
25	이베스트투자증권	185	14.23	0.48
26	카카오페이증권	50	12.50	0.13
27	우리종합금융	45	15.00	0.12
28	케이프투자증권	40	20.00	0.10
29	코리아에셋투자증권	20	20.00	0.05
29	케이알투자증권	20	20.00	0.05
31	한국산업은행	15	16.67	0.04
32	케이아이디비채권중개	10	10.00	0.03
총합계		38,527	19.14	100.00

* 채권 인수사가 인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합산
* 수수료는 발행실적보고서상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함

2022년 1분기 여전채 인수 수수료				
순위	주관사	금액(백만)	평균bp	점유율(%)
1	한국투자증권	1,734	7.79	11.85
2	한양증권	1,316	11.43	8.99
3	다올투자증권	1,235	8.10	8.44
4	이베스트투자증권	1,234	9.84	8.43
5	부국증권	1,128	11.93	7.71
6	NH투자증권	739	7.62	5.05
7	KB증권	703	8.56	4.81
8	흥국증권	649	12.04	4.44
9	교보증권	560	6.92	3.83
10	SK증권	505	8.64	3.45
11	현대차증권	403	14.39	2.75
12	유진투자증권	397	9.22	2.71
13	키움증권	393	6.48	2.69
14	미래에셋증권	318	7.40	2.17
15	하이투자증권	293	9.29	2.01
16	BNK투자증권	267	5.68	1.83
17	케이알투자증권	255	11.60	1.74
18	케이프투자증권	240	13.31	1.64
19	IBK투자증권	231	19.27	1.58
20	신영증권	221	6.83	1.51
21	DB금융투자	213	16.40	1.46
22	한국산업은행	207	9.00	1.41
23	유안타증권	206	17.15	1.41
24	케이아이디비채권중개	187	8.93	1.28
25	한화투자증권	170	7.40	1.16
26	신한금융투자	158	12.62	1.08
27	DS투자증권	155	13.99	1.06
28	삼성증권	153	14.62	1.04
29	메리츠증권	140	6.38	0.96
30	코리아에셋투자증권	90	14.96	0.61
31	하나금융투자	76	5.85	0.52
32	대신증권	37	9.25	0.25
33	카카오페이증권	20	20.00	0.14
총합계		14,634	9.19	100.00

* 채권 인수사가 인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합산
* 수수료는 발행실적보고서상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함

2022년 1분기 ABS 인수 수수료				
순위	주관사	금액(백만)	평균bp	점유율(%)
1	SK증권	520	10.00	28.56
2	신한금융투자	320	7.79	17.58
3	키움증권	161	25.76	8.84
4	하이투자증권	143	9.70	7.85
5	KB증권	141	3.86	7.76
6	한화투자증권	100	17.24	5.49
7	한국산업은행	95	10.00	5.22
8	IBK투자증권	60	3.98	3.30
8	유안타증권	60	3.98	3.30
10	미래에셋증권	50	10.00	2.75
11	대신증권	45	3.32	2.48
12	하나금융투자	45	10.00	2.47
13	한국투자증권	35	2.79	1.93
14	NH투자증권	35	10.00	1.92
15	우리종합금융	10	1.00	0.55
총합계		1,821	7.42	100.00

* 채권 인수사가 인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합산
* 수수료는 발행실적보고서상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함